

인천이 궁금해요~ 궁금하면 **톡!**

GCF 사무국 오픈, 정명 600년, 제94회 인천전국체전, 2013 인천실내 & 무도아시아경기대회,
원도심 개발 등 새해에도 인천시에서는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인천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손가락으로 '톡' 터치해주세요.

인천시 미디어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 (enews.inc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cheon.go.kr)

인천시 SNS

소셜웹 (social.inccheon.go.kr)

블로그 (blog.naver.com/flyic)

트위터 (twitter.com/smartinccheon)

미투데이 (me2day.net/inccheon4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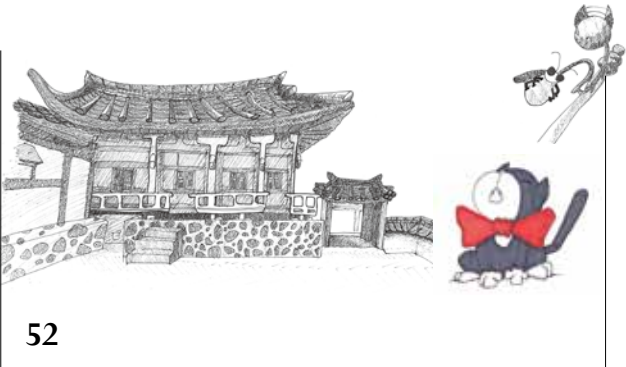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cheon)



contents

2013 January | vol.229

			
16	22	30	36



52

04	Communication	‘차이나타운의 보석 같은 그곳’ 外
08	2013 신년사	송영길 시장, 이성만 시의회 의장
10	Vision Incheon	2013 시정키워드
12	포커스	만화로 보는 2013 인천시정
16	여기, 인천	동인천 지하상가
22	Special	카페에서 바다보기
28	아름다운 사람	‘무거운’ 삶 이기는 ‘가벼운’ 웃음
30	인천인이 사랑한 오래된 한식당	경동삼강옥
34	사진으로 보는 정명(定名) 600년	산업화 시대의 인천
36	Culture News	‘인천시립극단 제64회 정기공연’ 外
38	Civic News	‘세계적 자동차 부품기업, 인천에 온다’ 外
42	Council News	‘토지주택공사 관련 조사특위 3월까지 연장’ 外
44	Infobox	‘1월 문화예술에 참여하세요’ 外
47	건강백세	스트레칭만 제대로 해도 운동효과 ‘굿’
48	뉴스플러스	2013 시정 사자성어
50	이달의 서평	‘트렌드 코리아 2013’ 外
51	인천사는 이야기	‘인기 좀 끌던 그때’ 外
52	도도(都島), 그림으로 말하다	월미산
58	모닝커피 한잔	강욱업 시 역사자료관 전문위원
59	인천풍경 플러스	“괴물로 커주렴”



Cover Story

2013년은 인천 정명(定名)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인천은 지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활차게 뛰고 있습니다. 이번호 표지는 계사년 뱀띠 해를 맞아 ‘인천’이란 두 글자를 산 위에 뜨는 태양과ダイ나믹하게 움직이는 뱀을 형상화했습니다.

김기중 作_m010-5131-3146



Incheon Monthly magazine | vol.229 | 2013. 1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3년 1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허중식(대변인)

편집장

유동현(미디어팀장) twitter.com/ihappyou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twitter.com/youna1488

편집위원 정경숙 twitter.com/bluelou7

편집위원 김윤경 twitter.com/ice3333

사진

자유사진가 김보섭 · 김성환 · 홍승훈 · 안영우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디자인 & 인쇄 성광디자인(주) T. 032.881.9441



〈굿모닝인천〉의 못 다한 이야기, 동영상으로 보세요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기사의 취재 영상부터 뒷이야기까지 눈앞에 생생하게 종이매체에서 디지털매체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용방법 스마트폰으로 페이지 상단의 QR 코드 촬영
스마트폰인 경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인천시미디어〉 앱을,
테블릿 PC인 경우 〈굿모닝인천〉 앱을 다운로드 후 실행
(사진 더 보기 기능은 테블릿 PC에서만 가능)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과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T.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인천과 통(通) 하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손을 마주잡고 눈빛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천시 대표 미디어와 SNS에서 우리 만나요.



인천시 미디어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 (enews.in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소셜웹 (social.incheon.go.kr)
블로그 (blog.naver.com/flyic)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 (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독자와 함께, 인천이야기

시민께서 <굿모닝인천>을 보고 느낀 점
평소 인천에 대해 갖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차이나타운의 보석 같은 그곳

<굿모닝인천>을 통해 차이나타운에 짜장면 집 말고도 옛 추억을
느끼게 하는 정다운 곳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이가 들수록 새로운 눈으로 주의를 돌아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굿모닝인천>에서 인천의 보석 같은 장소들을 찾아 소개해주었
으면 합니다.

_ 김성철 서구 석남1동



2013 웃음 가득한 세상을 꿈꾸며

'어려운 이웃에 희망사다리를 놓다' 기사를 유익하게 읽었습니
다. 먹고 사는 것이 바빠 여유를 잃고 달려가고 있는 삶을 새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웃을 돌아보며 봉사와 나눔에 대
해 다시 생각해봅니다. 또 2013년에는 더 건강한 사회, 웃음 가
득한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_ 박윤호 서구 마전동



아름다운 명소가 많은 인천

'정서진에서 보내는 2012년의 마지막' 기사를 인상 깊게 보았습
니다. 올해의 마지막은 정서진 전망카페에서 푸르렀다 노을이 부
서져 붉게 물들어가는 바다를 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름
다운 명소가 많은 인천이 부럽습니다.

_ 전옥경 경기도 의정부시



인천의 미래를 기대

<굿모닝인천>을 통해 인천의 투자 유치 성과를 한눈에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로 활기 넘치는 인천의 미
래를 기대합니다. GCF 사무국 유치도 축하합니다. 인천이 친환경
경적인 도시로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

_ 하상범 경기도 남양주시



인천, 내 사랑

왔구나~ 집 앞에 들어서는 순간, 우편함에 담긴 노란 봉투가 반깁
니다. 바로 <굿모닝인천>이지요. '이탈에는 어떤 기사가 있을까?' 두
근거리는 마음으로 책장을 펼치면, 미처 몰랐던 인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굿모닝인천>을 보며 인천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_ 공명옥 연수구 청학동



아버지 고향을 가까이서 느껴

인천에서 태어나신 아버지는 늘 고향을 자랑하곤 하셨습니다. <굿
모닝인천>을 통해 아버지의 고향을 접하고 인천에 대해 좋은 느낌
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발전상을 보니 인천의 미래가 곧 우
리나라의 내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천 파이팅!

_ 김승진 경기도 동두천시

interview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 독자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참여를 원하면 문을 두드리세요, 모두 환영합니다.



인천사람들이 인천을 더 사랑했으면

독자, 차지은

차지은(23)씨는 <굿모닝인천>을 즐겨 보는 애독자이자, 시 인터넷방
송 'Mint TV'의 시민기자, 시 인터넷신문 'I-View'의 청년기자다. 소개
하기 벅찰 만큼 이 많은 인천과의 인연. 그만큼 인천을 아끼고 사랑
하는 마음도 크다.

인천과의 인연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길병원(호호) 사실 전에는 친
구들과 놀 때 서울로 가곤 했는데, <굿모닝인천>을 보고 인천도 참
갈 데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역사가 깊고 바다와 섬을 품고
있는 인천은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참 많아요.

추천, 인천의 명소 언젠가 친구와 함께 인천의 맛집 투어를 한 적이
있어요. 향한 곳은 동인천. 신포 닭강정, 만두, 쫄면, 삼치구이... 하
루를 돌았는데 먹을 게 하도 많아서 다음엔 1박 2일은 돌아야 겠다.

생각했어요. 하하.

굿모닝인천, 왜 좋아 기존의 재미없는 시정소식지가 아니라 신선하
고 재밌어서 좋아요. 이전 공공장소에서 찾아 볼 정도예요. 한두 권
씩 가지고 다니며 카페에서 읽고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지요.

기억에 남는 기사 가을 즈음, 강화 문학관을 탐방 기사를 인상 깊게
보았어요. 정보전달도 그렇지만 감성적으로 기사를 풀어가는 방식
이 좋았어요. 평소에 문화란도 챙겨서 봐요, 인천의 문화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아요.

I ♥ 인천! 인천사람들이 인천에 대한 애郷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인지 내 고향에 대한 관심이 부
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시가 발전하지 못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으로 인천의 희망을 일궈나갔으면 좋겠어요.

@Bulloger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Bulloger 내년도 출산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013년에는 둘째자녀 이후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이후는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 향후, 첫째자녀 출산가정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ulloger 인천이 좋아서 영종도까지 왔습니다. 우미린 2차에 살고 있는데 검암까지 가는 저렴한 마을버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종도는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은데, 교통비가 비싸 힘들어요. 영종지역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307번 버스를 신설하고 202번 버스 두 대를 증차해 공항철도와의 환승에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종지역 특히 하늘도시의 인구증가에 맞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가 증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영종IC 개통에 맞추어 303번 버스를 환승할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Bulloger 송영길 시장님, 2016년까지 수도권 매립지 종료선언을 하고 대체부지를 물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저해 및 환경문제 등을 사유로 매립기간 연장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은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운용방안 등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Bulloger 청라주민입니다. 시티타워도 연기되고 지하철7호선 연장도 오리무중이며, 청라이익금으로 송도한옥마을 건립을 추진하니 청라주민은 화가나네요 청라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 및 관광·레저, 첨단산업 등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업무타운과 국제금융단지에 대한 투자자 및 테넌트 유치 등 투자유치사업에 중점을 두어 서비스산업 전진기지로 구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R&D·부품소재 첨단산업육성 등 2020년까지 국제적인 도시건설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Bulloger 퇴근시간 버스 배차 늘려주세요. 어제 거의 버스에 매달려서 퇴근했어요.

출퇴근 시간대에 배차간격을 줄이고 그 외 시간대에 배차간격을 늘리는 탄력배차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정체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신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탄력배차제 지속운영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시민들의 버스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ulloger 세 돌이 되가는 아들과 인천교향악단 공연을 직접 보고 싶은데 인천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클래식 공연이 없나요? 대부분의 클래식 공연은 어두운 공연장에서 평균 2시간 가량 진행되어 영유아가 집중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고도의 집중을 필요로 하는 연주자들과 다른 입장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8세 미만 영유아의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타 시·도의 사례 검토 및 시립교향악단과의 협의 등을 거쳐 8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클래식 공연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일까요?

인천을 알아가는 재미가 가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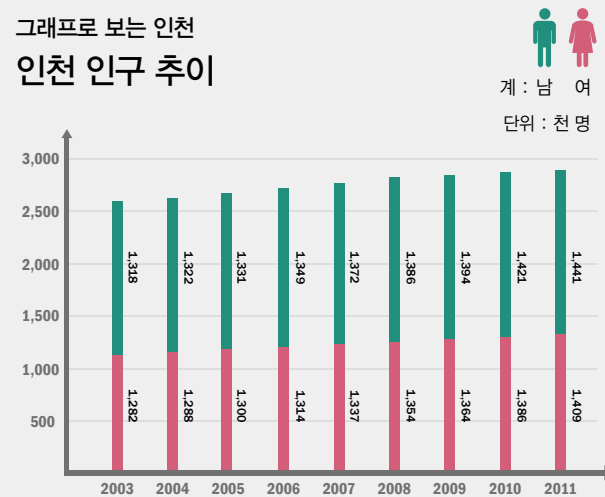
“어디 일까요?”

인천의 명소를 맞춰 보세요.

힌트 : 송도국제도시, 세 개의 사발

※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접수는 우편과 메일(bluelou7@korea.kr)로 받습니다.

그래프로 보는 인천 인천 인구 추이



※ 본 통계는 2011년 12월 기준입니다. 자세한 문의 시 정보화담당관실 440-2372~5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 이야기 인천에 대한 생각과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독자 인터뷰** 창간부터 지금까지 <굿모닝인천>과 함께 한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어디일까요** 사진 속 인천의 명소를 맞춰보세요. 채택된 분께는 작은 선물(재래시장상품권 1만원권 1장, 인터뷰는 2장)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032-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어디일까요' 접수는 우편과 메일로 받습니다.)

희망 에너지 넘치는 한해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90만 인천시민 여러분! 1만 3천여 공직자 여러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땀은 풍요와 가정의 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가정에도 풍요와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인천시정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깊은 정성과 뜨거운 열정에 2012년 임진년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새해 첫날 아침을 수봉공원 내 현충탑 참배로 시작합니다. 나라 위해 목숨 바친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우리시 공직자들과 함께 새로운 결의를 다집니다. 민선5기 인천시는 출범 이후 줄곧 활력이 넘치는 인천, 살기 좋은 인천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290만 인천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소중히 받들고, 임기 초부터 추진해 온 3대 핵심사업(3Care)과 원도심 활성화 등을 위한 5대 시정목표의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복지 등 시정 전반에서 에너지가 폭발하는 한해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90만 인천시민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실 것입니다. 극심한 세계경제의 불투명과 국내 경기 침체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시의 부채문제가 하루아침에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긴축예산을 통해 '아껴쓰고, 빌려쓰고, 벌어들인'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경쟁력을 최대한 발휘,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세수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인천시민의 염원인 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5기 인천시는 오로지 시민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제18대 새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경쟁력 있는 인천시, 자랑스러운 인천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더 많이 만나고 소통할 것입니다.

시민의 참여 속에서 더욱 신뢰받는 인천광역시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계사년(癸巳年) 새해아침
인천광역시 시장

시민에 행복주는 의정 펼치겠습니다



인천정명 600년, 미추홀 2000년이 되는 희망찬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맞이하는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하락 내수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인천시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경기장 조성과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 도시 인프라 구축 등 특수한 재정수요가 겹쳐 힘들었습니다. 재정난 극복을 위해 각계의 참여와 협력으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든 한해였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나가고자 매주 수요일 시민과 소통하는 날 운영과 민생현장 방문, LH 조사특위 활동을 통한 업무협회의 완료,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 체결,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복지관련 전문교육 실시, 인천시의 역차별 개선을 위한 설명회, 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 건의안 발의 등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290만 시민 여러분은 인천시 의회의 힘입니다.

새해 인천시의회는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까지 소중하게 귀담아 듣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열린, 책임의회라는 3대원칙을 가지고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GCF 사무국의 조기출범 및 안정적인 정착',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차질 없는 준비', '보편적 복지사업 확대' 등에 대해서도 협력과 견제의 조화로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비전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람과 도시가 공존하는 복지도시 인천, 경제수도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계사년 새해 인천광역시의 기운이 모든 분야에서 비상하는 변영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계사년(癸巳年) 새해아침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2013 인천, 더 높이 도약한다

2013 계사년 인천의 목표는 '도약'이다. 작년엔 재정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했고, 세계 환경 부문의 월드뱅크인 GCF 사무국을 유치해 상상을 위한 변곡점을 지났다. 올해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탄탄히 다진 내부의 힘을 모아 인천의 저력을 한껏 보여줄 때다.

2013년을 장식할 정명 600년사업,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인천체전 등 굵직한 사업을 착실히 준비해 인천의 비전, 미래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크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GCF 사무국 오픈

환경부문의 세계은행이라 할수 있는 GCF 사무국이 6~7월 오픈할 예정이다. 사무국은 송도국제도시 I-Tower에 위치하며 초기엔 1백 여명의 직원이 상주한다. 시는 외국인을 위한 친환경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한다. 우선 채드워국제학교 입학특례와 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원스톱 행정이 가능한 글로벌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 보육문제 해결 차원으로 I-Tower에 국제어린이집을 개원하고, 2015년까지 송도국제어린이집을 추가로 짓는다. 시는 GCF기금의 첫 온실 가스 감축사업으로 황해도 개성 일원에 500ha규모의 나무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원도심 르네상스 시대' 열어

우리시는 소외되고 정체되어 있는 원도심에 생기를 불어넣고자 '원도심정비사업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원도심 정비사업의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원도심 정비 주요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도시재생사업, 역세권개발이다. 우선 원도심 재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원도심 활성화 전담기구 설치,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원마련에 힘써 주민이 원하는 구도심개발의 모델을 만들어 간다.

미추홀 2000년, 인천정명 600년

인천의 나이는 몇 살? 정답은 600살이다. 태종13년 1413년 10월 15일 인천으로 명명되어 2013년 6백년이 됐다. 인천은 BC 18년 비류의 미추홀로 시작하여 개척정신, 개항기 근대문화의 선구지로 역사적으로 크고작은 굴곡을 간직하며 성장했다. 시는 인천정명 600년을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시민참여 사업을 펼친다. 60명 내외 역사인물 발굴, 학술대회, 인천역사 깊이알기 퀴즈왕 선발대회, 인천도

시 변천사 전시회, 재미있는 영상물 제작 행사를 갖는다. 또 인천시민의날과 연계한 미추홀 2000년, 정명 600년 인천선언 및 축하공연도 개최한다.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사전 대회격인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삼산월드체육관을 주경기장으로 8개 체육시설에서 경기가 치러진다. 인천실내무도대회에는 45개 OCA회원국의 선수단, 임원, 미디어를 포함해 4천4백명이 인천을 찾는다. 대회종목은 당구, 볼링, 댄스스포츠, 무에이, 킥복싱, 바둑, 실내카바디, 크라쉬, 풋살, e-스포츠 등이다. 이번 인천대회는 12개 종목을 9개로 조정해 규모를 최소화했고, 운영경비 절감을 기했다. 2013년 인천대회는 실내 아시안게임과 무도대회가 통합되어 열리는 첫 대회다.

2013 시 예산 복지비중 최대

우리시의 2013년도 예산규모는 6조 9천 768억4천706만원으로 정해졌다. 어려운 경제현실과 재정여건을 감안, 당초보다 긴축한 예산규모다. 시의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다. 2011년 26%에서 2012년 27.8%로 올랐다. 이외에도 문화, 관광분야 몫으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준비 3천708억원, 2013 인천 전국체전 267억원,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235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는 2013 예산 편성의 중심을 원도심 개발과 민생안전, 재정건전성 회복을 목표로 두었다.

전국체전, 이제 인천이다

인천은 작년 대구로부터 전국체전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인천은 작년 제93회 대구체전에서 7위를 기록하며 선전했다. 제94회 인천체전은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문학경기장의 64개 경기장에서 경기가 치러진다. 14년만에 인천에서 국내 스포츠의 꽃인 '체전'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경기는 고등, 대학, 일반부별로 선수 2만2천여명과 임원 8천여명 등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 46개 종목이 펼쳐진다. 제94회 인천체전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리허설 성격도 띠고 있다.

2013 인천, 시민 행복도시로

Ⅰ 인천에서 태어나, 공부하고, 일자리도 얻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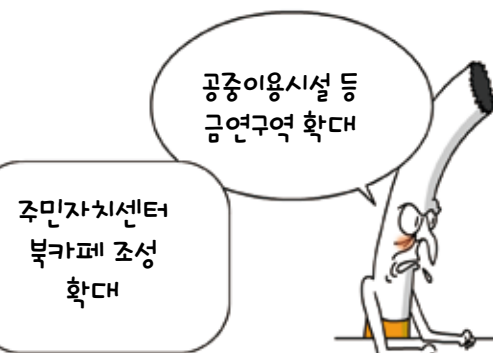
2013년 인천은 새로워진다. 인천대학교가 국립대로 출범하고, 인천여성의 행복을 책임질 인천여성가족재단이 탄생한다.
세계가 주목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2013 인천의 달라지는 시정을 그려본다.
그림. 김진호_인천일보 화백

Ⅱ 여성이 행복한 도시, 복지가 희망



편리한 생활, 안전한 시설

도시형자기부상열차 타고
 용유 · 무의여행
 9월부터 운행 시작해요



시민생활도 스마트하게





동인천은 여전히 우리의 ‘중심’



인천사람 가운데 소싯적 동인천에서 놀아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공간은 넓어 인천의 ‘중심’은 어느새 ‘변두리’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생애 가장 빛나던 시절과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안영우 자유사진가



‘주변’ 되어 버린 인천의 ‘중심’

7,80년대 서울에 명동이 있다면 인천에는 신포동과 동인천역 일대가 있었다. 학창시절 주무대가 아니더라도 인천사람 가운데 이곳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없다. 72년에 생긴 인천 최초의 지하상가인 동인천 지하상가도 그렇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공간은 넓어 주안, 부평에 밀리더니 ‘중심’은 어느새 ‘변두리’가 되고 말았다. 곳곳에 굳게 내려진 샷다와 그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점포임대’ 안내가 과거의 영광과 교차되어 쓸쓸함을 자아낸다.

“그땐 굉장했어요. 지상과 지하가 인천 최대의 상권으로 서로 부딪치며 다닐 정도로 사람이 많았지요. 인천에서 새 신발 새 옷 하나 장만하려면 꼭 이곳에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지하상가에서 아들과 함께 금은방 ‘도레미양행’을 운영하는 동인천의 터줏대감 옥현철(51)씨는 그때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한다. 사람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인천 최고의 변화가, 바로 인천사람들의 기억 속에 머무르는 동인천의 모습이다.

이야기 +

도레미양행의 모태는 그 옛날 극장광고에도 종종 등장했던 도레미소리사. 아버님이 운영하던 소리사는 전파사가 되었고 금은방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도레미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 그 세월이 50여 년이다. 가게는 원래 중앙시장에 있다가 북광장역을 조성하면서 지하상가 안으로 옮겨졌다. 30여 곳에 이르던 금은방 가운데 지금은 10군데 정도가 살아남았고, 한때 돈 걱정 손님 걱정 없던 장사는 지금 영 시원치 않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5,60대 어르신 상인들 사이 눈에 띄는 아들 보형(27)씨, 스스로 가업을 잇겠다고 나선 그에게서 동인천의 희망을 본다.



화려하진 않지만, 잘나갔던 그곳

신포동부터 동인천역 인근까지 길게 늘어선 지하상가는 72년 새동인천을 시작으로 74년 동인천, 77년 중앙로, 80년 인현, 83년 신포까지 모두 5개의 지하상가가 이어져 조성됐다. 그 시작이 서슬 퍼런 시절 국가보안을 위한 주민대피가 주 이유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처음 대피시설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하도는 냉난방과 환기가 미흡했고 일반 형광등과 백열등으로 조명을 밝혀야 할 만큼 열악했다. 상인들 스스로 힘을 모아 시설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 한 건 2002년이 되어서다.

“개보수 전에는 인테리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벽열등을 켜고 합판에 벽지를 대충 발라놓은 가게도 있었지요. 그래도 인천에서 지하도상가라곤 이곳 밖에 없으니 사람들이 몰릴 듯 몰려와 정신이 없었어요.”

황인환(46)씨는 18년 전부터 이곳에서 옷 장사를 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먹고살기 좋았던 때를 추억하는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진다. 여기서 36년 동안 신발을 팔아 온 'SSAZIO'의 주인 김갑숙(57)씨도 동인천의 전성기를 말해준다. 스물셋 꽃다운 나이에 양화점 점원으로 일을 시작한 그는 1년 후 바로 사장

으로 신분상승했다. 20여 년 전 한창 때는 당시 공무원 한 달 월급이던 40만원을 하루에 다 벌기도 했다. 하지만 그도 시대의 흐름을 피할 수 없어 휴대폰판매로 업종을 바꾸었다가, 단골들을 외면할 수 없어 최근 매장 한편에 신발가게를 자그맣게 다시 열었다.

락에서 뽕짝으로, 동인천 나이 들다

90년대 초반 만해도 동인천 지하상가는 젊음으로 물결쳤다. 젊은이들을 이끈 것 중 하나가 레코드가게였다. 8, 90년대 여기에는 10여 곳이 넘는 크고 작은 음반점들이 모여 호황을 누렸다. 가요부터 팝, 재즈, 클래식에 이르기까지 없는 게 없어 굳이 음반을 사러 서울까지 나갈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가게는 단 두 곳뿐. 처음에는 모두 한사코 촬영과 인터뷰를 사양했는데, ‘음악세계’의 이천숙(58)씨와는 음악이야기를 하며 마음을 뽏다. 좋아하는 밴드는 ‘건즈 앤 로지스’, ‘드림 시어터’, ‘마릴린 맨슨’… 세상에, 나이가 60에 가까운 지금도 파워 메탈밴드 ‘감마레이’의 음악을 듣는단다. 하지만 음악이 좋아 29년째 가게를 지키고 있는 주인은 손님을 배려해 트로트를 틀어놓는다. 가게 안을 가득 메운 7080음악과 트로트메들리, 저 높이

먼저 자욱이 쌓여 내려가는 팝송 테이프가 그 까닭을 말해준다. 팝송에서 뽕짝으로, 동인천은 그렇게 늙어가고 있었다. 팬시점 ‘캔버스도’ 참 유명했다. 참새가 방앗간을 찾듯 학교가 파하면 학생들은 이곳으로 우르르 모여들었다. 15명이나 되는 점원들이 의자 위에 올라가 망을 보아도 보이는 건 까만 머리뿔, 학용품 서리를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주변 학교가 구도심을 벗어나고 학생들이 떠나면서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줄어들었다. 가게 한편에 마련된 좌판에 양말과 속옷을 고르는 할머니와 아주머니들의 손길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야기※

학생들이 모이다보니 생긴 에피소드 하나. 당시 지하상가에서 화장실을 가려면 입구를 지키던 매점 할머니에게 돈을 내야만 했다. 할머니는 까치담배를 팔기도 했는데, 나이 지긋한 어르신인 보기에는 아저씨도 청년 같고 학생도 청년 같았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교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학생들이 감쪽같이 50원과 담배 한 개비를 바꿔치기 하곤 했다. 그 분을 볼 수 있을까. 상인들에게 물으니 돌아가셨는지 어디 살아 계신지 아무도 몰라요, 라는 답이 돌아온다.

동인천의 시간은 지금도 흘러 간다

그래도 신평문화의 거리와 애관극장 일대, 동인천역을 끼고 길

게 쪽 뻗은 신평지하상가와 중앙로지하상가는 예전만은 못해도 사정이 낫다. 의류와 잡화 매장과 뷰티숍이 몰려 있어 젊은 사람들도 꽤 눈에 띈다. 외국인들도 보인다. 주로 배것을 통해 인천으로 들어오는 중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중동사람들이다.

30년 전 처음 터를 잡은 안정원(56)씨의 화장품 가게는 아직도 성업 중이다. 그동안 한때 종합화장품 가게 붐이 일고 또 언제 부턴가 저가 브랜드가 쏟아져 상가를 장악했다. 초창기 함께 했던 두 곳의 화장품 가게는 문 닫은 지 오래. 하지만 이곳은 예전처럼 식사할 시간이 없을 정도는 아니어도, 단골이 많아 여전히 장사가 잘 된다. 매마침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다. “엄마, 필요한 거 말해봐. 이왕이면 샘플 들어있는 것으로 푸짐하게 챙겨드릴게.” 먼저 의자에 앉혀드리고 오래도록 제품을 골라드린다. 샘플 용기에 일일이 펜으로 용도를 적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 친절함과 인간다움이 그를 지금껏 이 자리에 지탱하게 했으리라.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와 달경거리는 1호선에 몸을 싣는다. 창밖에는 어둠이 펼쳐져 있다. 가만히 동인천의 현재를 헤아려본다. 앞으로 10년 이곳은 또 어떤 모습일까. 분명한 건, 동인천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찾아라, 동인천 지하상가 명소

잘 나가던 그때 그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에서 여전히 맘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동인천 지하상가와 그 안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인천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도레미 양행 옥씨네 금은방으로도 유명하다. 도레미소리사에서 전파사, 금은방으로 삼대가 50년 째 동인천을 지켜 오고 있다. 고 객을 향한 친절과 신뢰도 세대를 건너 변함없이 어어져 흐른다. 새동인천 63호, ☎ 764-2135

진희네 모자가게 김기철(71) 할아버지는 중 앙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다 5년 전 이곳으로 왔다. 모자들이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큼 곱 고, 젊은이 취향의 물건도 눈에 띈다. 새동인 천 33호, ☎ 773-1621



SSAZIO ‘싸지오’ 이름 그대로 제품이 싸고 질도 괜찮다. 후한 인심은 기본. 주인 김갑숙 (57세)씨는 새동인천 지하상가가 초창기 양 화점들로 이름을 날릴 때부터 신발을 팔았 으니, 그 감각을 믿어볼 만하다. 새동인천 24호, ☎ 763-0636

씨리네 게임전문점 주인 박성근(43)씨는 20년 전 종업원으로 시 작해 사장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당시 ‘겜보이’와 ‘재믹스’ 등을 사던 초등학교생들이 지금은 성인이 되어 자녀와 함께 찾아 오기도 한다. 새동인천 99호, ☎ 772-2431

음악세계 한때 음악 좀 듣는 젊은이들이 찾 았지만, 지금은 MP3를 다운받는 건 엄두도 못내는 노인들이 드문드문 발길을 잇는다. 대세는 뽕짝. 하지만 주인은 29년이 지난 지 금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동인천 34호, ☎ 763-0771



다울 이동통신 이장심(53) 대표는 90년대 삐삐에서 휴대폰으로 넘 어갈 때 처음 가게를 열었다. 당시 지하에서 통화가 되지 않아 연결 을 확인하기 위해 계단이 가까이 있는 문 앞에 매장을 열었던 건, 지금은 아름다운 추억이다. 동인천 5~7호, ☎ 777-6775

캔버스 동인천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라면 이곳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학교가 파하면 우르르 이곳으로 모여 문구 고르 는 재미에 푹 빠졌다. 전수원(60) 할아버지에 이어 지금은 조카 가 가게를 돌보고 있다. 동인천 85호, ☎ 761-2888

자방모드 박학순(59)씨는 30년 전 가게 문을 처음 열었다. 전과 달리 지금은 오후 7시만 되도 발길이 푹 끊기지만 박씨는 늦은 시간까지 손님을 기다린다. 곧 상권을 회복하고 장사가 잘 되리 라는 믿음을 가슴에 품고, 동인천 18호, ☎ 772-3704



아이엠 인현지하상가 상인회 박경하(45) 회 장이 운영하는 인현지하상가 유일의 남성복 집. 87년부터 영업하던 이곳도 한때 식사할 시간이 없을 정도 잘나갔다. 언젠가는 다시 환히 웃을 날이 오리라. 인현 47, 48호, ☎ 772-7877

이레 수선 승필남(65) 할머니의 야무진 손길에 20년이 흐른 지 금도 여전히 단골이 많다. 바뀐 거라면 예전에는 매장에서 새로 산 옷을 고쳤는데, 지금은 집에서 입던 헌옷을 고쳐준다는 점이 다. 인현 41호, ☎ 010-7454-7425

중인 한때 인현지하상가를 중심으로 모여 있던 사진관은 디카의 보급으로 네 곳으로 줄고, 현재 명화사진 작업 중심으로 굴러간 다. 하지만 최지우(40)씨네 사진관은 사진 잘 찍기로 소문 나 다 른 도시 학생들이 찾아 올 정도다. 인현 39호, ☎ 772-7820



Da 최옥란(46)씨는 친절하게 취재를 도와 준 신포지하상가 황인환 운영이사의 부인이 다. 남편과 함께 오래도록 옷 장사를 해왔다. 그의 말에 의하면 ‘옷 좀 입는 사람’이라면 이 가게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신포 52호, ☎ 772-9143

태후사랑 염색방 1년 전 미용실이 있던 자리에 염색방이 들어섰 다. 박정숙(54) 원장은 백발이 아닌 이상 단돈 1만원에 새치를 감 쪽같이 없애 준다. 운동기계까지 들여 놔 엄마들의 사랑방으로 더할 나위 없다. 인현 18~20호, ☎ 862-4738



동양철학관 안호근(65) 역술가는 많은 사람 과 만나고 싶어 7년 전 지하상가에 점집을 냈다. 그 뜻대로 상인, 공직자, 정치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는다. 미래 예측 이 전문이라는 그에게 인천의 미래를 물으니, 잘 될 거라며 호탕 하게 웃는다. 신포 92호, ☎ 765-8489

정원화장품 써 있는 이름은 보떼이지만 사 람들에게 이곳은 ‘정원화장품’으로 통한다. 지하상가 초창기 화장품 가게 세 곳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아 여전히 성황 중이다. 엠 플을 구입하면 마사지도 받을 수 있다. 신포 42호, ☎ 762-8184



미미 네일 한 5년 전부터 동인천에서도 네일샵이 하나둘 들어섰 다. 김정옥(42)씨는 부평, 주안보다 동인천 지하상가가 뷰티숍의 틈새시장이라고 말한다. 엄마들이 자주 찾아 친절은 기본. 중앙 15호, ☎ 777-3096

까슈까슈 나점례(54)씨 가게의 구두들은 언뜻 보아도 가격대가 있어 보인다. 역시나 14원부터 30만원대에 이르는 수제화를. 하 지만 주인의 감각과 제품의 질에 반한 단골들은 이에 아랑곳 않 고 발걸음을 잇는다. 신포 144, 145호, ☎ 765-6697

정보+

동인천 지하상가는 신포동부터 동인천역 인근까지 5개의 지하상가가 모여 있 다. 제일 먼저 생긴 새동인천 지하상가에는 북광장을 조성하면서 시장에서 내 려온 금은방들이 모여 있다. 어르신들이 좋아할 신발·모자 가게도 많다. 동인 천지하상가에서는 대형 팬시점이, 인현지하상가에서는 옹기종기 모인 사진관 들이 눈에 띄며 이와 함께 옷·휴대폰 매장 등이 있다. 또 신포지하상가와 중 앙로지하상가에는 보세부터 저가 브랜드까지 의류·잡화 매장과 화장품가게, 뷰티숍이 몰려 있다. 개장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에는 중앙로지하상가와 신포지하상가가, 같은 주 화요일에는 인현지하상가와 새동인천지하상가가, 목요일에는 동인천지하상가가 쉰다. 문 의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522-9015, 새동인천지하상가 772-9643, 동 인천지하상가 762-8011, 중앙로지하상가 772-8678, 인현지하상가 773-0063, 신포지하상가 763-1717



바다는 냉(冷), 시선은 온(溫) 창 너머 겨울바다와 만나다



1월이다. 신년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엔 부푼 희망이 꿈틀거린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나를 다시 세운다. 비록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새로워지겠다는 각오가 충만하다.

새해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 곳으로 바다만큼 좋은 곳도 없다. 목도리, 장갑, 털모자로 중무장하지 않아도 따뜻한 곳에서

차 한잔의 여유를 느끼며 겨울바다를 감상해보자. 카페에서도 바다의 힘찬 물결과 드넓은 기운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리라.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겨울의 낭만, 겨울바다를 만끽해 보자.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정서진 카페 '아라'(Ara) 서해의 시작, 새희망의 표징

정서진은 낙조가 아름답다. 서해바다로 떨어지는 낙조의 풍광은 국내 제일이다.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24층에 위치한 '카페 아라'는 아름다운 낙조와 서해바다를 품고 있다. 카페 아라에 앉아 있다면 낭만 가득한 크루즈선을 타고 마치 드넓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듯 여유롭고 평화롭다. 아라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빛나는 내일의 상징이다. 한강과 서해바다가 합쳐지는 곳이라는 의미도 남다르지 만 서해 바다로 나가는 관문이 자 시작점이기엔 새해 새 희망의 표징이 되기도 한다.

카페 아라에서는 1월의 칼바람 속에서도 바다를 보고자 호호 입김을 불어넣고, 발을 동동거리지 않아도 된다. 바다를 편안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바다방향으로 좌석이 배치되어 넘실거리는 서해를 고요히 바라볼 수 있다. 통 유리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미지의 세계이자 떠오르는 희망으로 꿈틀댄다. 영종대교, 경인아라뱃길 갑문도 훤히 들어온다. 식사와 더불어 따뜻한 차를 마시는 여유를 한껏 즐기며 바다를 눈으로 마음으로 담는다. 향기로운 녹차, 달콤한 유자차는 겨울바다의 고독을 녹여낸다. 아라에서는 연말 연시 기간엔 런치세트로 스테이크 코스 3만 8천원, 파스타 코스 1만 2천원으로 제공한다. 문의 564-4502





카페 '오라'(Ora) 왕산, 을왕리 바다 다채롭게 감상

을왕리 해변의 갯내음을 맡으며 드라이브를 하다보면 을왕리 해수욕장과 왕산해수욕장 중간지점 언덕에 바다를 향해 제 모습을 드러낸 멋진 건축물을 만날 수 있다. '카페 오라'다. 카페 간판은 조약돌이 디자인의 모티브가 되었고 바다로 향하는 듯한 건축미가 독특하다. 초현대식 건물에 모던한 디자인으로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이곳은 2009년 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받았다. 카페는 언덕에 자리잡아 바다 뷰(View)가 시원하다. 겨울 왕산과 을왕리해변의 바다 풍경이 통유리 너머로 한눈에 들어온다. 빼딱하게 틀어진 유니크한 건물의 각도에 따라 왼쪽으로는 왕산, 오른쪽으로는 을왕리 해변의 변화무쌍한 바다를 감상하는 다채로움이 있다. 바다 뷰는 2층 보다는 3층이 더 좋다. 바다를 좀더 가까이 보고 싶다면 카페 바깥 테라스로 나가는 것도 좋다. 두터운 세터를 입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테라스벽에 기대어 겨울바다에 빠져보는 것도 또다른 즐거움이다. 바다로 나아가는 듯이 설계된 나무테라스는 이곳의



특별한 공간이다.

이곳 임철순 지배인은 바다를 보며 마시는 음료로 연인들에게 부드럽고 달콤하면서 기쁨이 살아있는 '카푸치노'와 '라테'를 권한다. 어르신들에게 인삼을 우려내고 꿀과 우유를 섞은 인삼라테를 추천한다. 따뜻한 차 한잔과 이곳에서 만든 케익을 곁들이면 더욱 더 즐거운 바다감상이 가능하다.

카페 오라는 음료와 케익, 아이스크림을 자체적으로 만든다. 퀄리티를 위해서다. 케익의 경우 달지 않고 느끼하지 않으며 담백하다. 오라(ORA)는 라틴어로 해변, 해안이라는 뜻이다. 문의 752-0888



을왕리 ‘낙조대’ 눈앞서 출렁이는 바다에 ‘탄성’

을왕리 해변의 즐비한 회집을 뒤로하고 언덕을 오르다보면 3층 규모의 고풍스런 건물을 만난다. ‘낙조대’. 이름 그대로 태양이 떨어지는 아름다운 장소다. 낙조대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가깝다. 멀리서 관조하는 바다가 아닌 바로 발밑에서 출렁이는 바다다. 가까이 서 보는 바다는 장관이다 못해 장엄해 탄성이 절로 터진다.

음료와 컵테일을 판매하는 이 카페는 3층 테라스로 나가면 서해바다와 정면으로 마주한다. 테라스에서는 의자에 앉아서 또는 난간에 기대어 전망좋은 바다를 구경할 수 있다. 두툼한 털모자 속으로 파고드는 바닷바람을 맞으면 머리를 세게 맞은 듯 아찔하다. 펄럭 정신이 돌아온다. 그렇게 차가운 해풍을 맞다보면 따뜻한 차가 그리워진다. 따뜻한 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연 가득하다. 바다를 보며 새희망을 충전하러 오기도 하고, 머리아픈 일을 잊기 위해 찾기도 한다. 바다의 큰 선물은 넓은 공간이 시름을 씻어준다는 것이다. 낙조대는 카페에서 바다로 나가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2,3층 실내에서 전망하는 바다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뒤뜰로 나가 겨울바다를 봐도 된다. 산책로를 걷다보면 철썩거리며 쉽없이 다가왔다 사라지는 바다가 눈앞에 나타난다.

문의 751-3331



월미도 ‘예전’, ‘미투’ 2층 창가에서 바다를 품다

월미도 관광문화의 거리. 8,90년대 레스토랑 분위기를 닮은 ‘예전’은 이곳의 터줏대감이 다. 35년 전 오픈한 예전은 문화의 불모지대였던 인천에서 예술의 전당 역할을 톡톡히 했다. 시인들의 시 낭송회, 연주회가 열려 문화의 꽃을 피웠다. 그래서 40~50대 손님들 중엔 월미도하면 예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게 이곳은 젊은시절 낭만과 향수가 그대로 남아 있는 추억의 장소다.

2층 건물인 예전에서는 월미도 앞바다가 훤히 보인다. 통유리 너머로 건너편 영종 하늘 도시를 에워싼 아파트가 선명히 눈에 들어오고, 갈매기, 오고가는 여객선이 정감있는 바다풍경으로 다가온다. 장엄하면서 당당한 바다는 매일매일 봐도 지겹지 않다. 매일 물빛이 다르고, 물결의 방향이 틀리며 하늘의 쪽빛도 변화무쌍하다.

예전의 김정순 지배인은 겨울바다와 어울릴 차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카페모카’, 거품이 맛있고 향긋한 ‘카푸치노’를 권한다. 차 한잔에 낭만과 여유를 느끼며 바다에 내 마음을 실어보는 것도 괜찮은 신년맞이 일 듯하다. 문의 772-2256

예전말고도 월미도엔 바다가 보이는 카페가 몇 개 더 있다. 전망좋은 2층은 대개 회집이 차지하고 있지만 커피 전문점 ‘미투’(Me Too)도 시원하게 바다가 보인다. 이곳은 커피의 경우 핸드드립으로 제조해 맛과 향이 탁월하다. 정형화된 맛이 아닌 정성을 다한 특별한 커피다. 2층 바다가 보이는 창가쪽 좌석에서는 겨울풍경, 바다를 오가는 사람들의 일상, 넘실거리는 바다가 총체적인 그림이 되어 다가온다. 문의 772-7131





‘무거운’ 삶 이기는 ‘가벼운’ 웃음

글. 정경숙_본지편집위원 사진. 김보섭_자유사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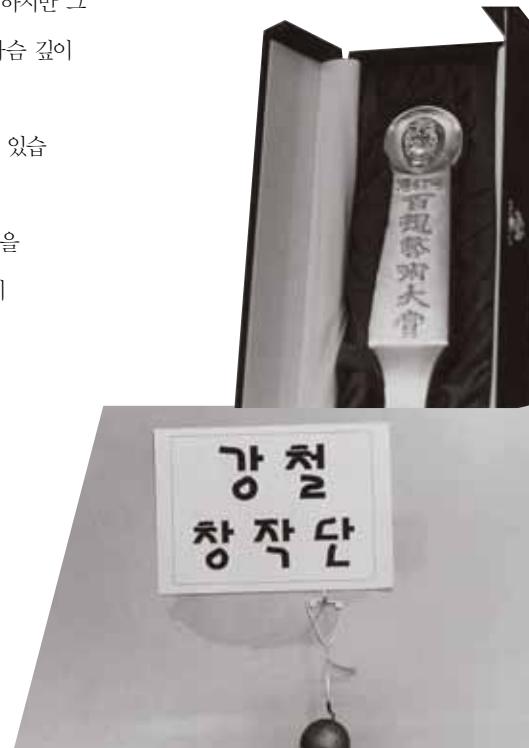
“코미디는 약자가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약한 사람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웃음으로 위로 받는 거죠.” 욱상호 감독은 전작 〈방가? 방가!〉를 통해 차별 받는 외국인노동자들과 학력, 외모 등 소위 ‘스펙’ 없이는 취업하기 어려운 우리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최근 영화 〈강철대오 : 구국의 철가방〉에서는 짝사랑하는 여대생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혁명투사가 된 중국집 배달원의 이야기를 담았다. 욱상호, 그는 사람들을 웃기는 영화감독이다. 하지만 그의 요절복통 코미디 안에는 ‘참을 수 없이 무거운’ 삶과 사회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래서 그의 영화를 보면 혼을 쏙 뺏길 정도로 정신없이 웃다가도 어느새 눈가가 축축이 젖어든다.

그의 영화와 기존 코미디의 차이점은 사회적인 배경에 있다. ‘강철대오’는 1985년 미문화원 점거농성이라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내용이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82학번인 그는 당시 대학 4학년생으로 사회에 순응하며 앞날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무렵 신문을 통해 본 민주화투쟁 현장 속 학생은 순수하고 열적이었다. 그 모습이 가슴 깊이 각인되어 오늘 ‘강철대오’라는 영화를 탄생시켰다.

“요즘 학생들은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로를 고민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학이 순수했던 적도 있었다, 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소재의 코미디가 관객들의 관심을 끌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실을 파고들수록 재미가 떨어지고, 재미있는 상황이 이어지면 메시지가 묻혀 버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8억이라는 저예산으로 100만 관객을 이끈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작 〈방가? 방가!〉를 제외하고, 그의 영화는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도 욱 감독의 뜻에는 흔들림이 없다.

“강자가 아닌 약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봅니다. 그렇기에 내게 있어 코미디가 의미 있는 것이고요. 영화를 통해 세상의 약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싶습니다.” 취업의 고배를 마시고 부탄 사람으로 위장 취업한 청년, 계급(?)을 넘어 여대생을 짝사랑하는 중국집 배달원. 욱상호 감독 영화의 중심에는 늘 ‘평균 이하’의 남자가 있다. 하지만 따뜻하고 지적인 유머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싶다, 는 그는 ‘평균 그 이상’의 사람이었다.



욱상호 감독은 영화 〈장미빛 인생〉(1994)의 시나리오를 써 총무로에 입문했다. 이후 〈금홍아 금홍아〉(1995), 〈축제〉(1996) 등을 각색하고, 〈아이언팩〉(2002)으로 데뷔, 〈달마야, 서울가자〉(2004), 〈방가? 방가〉(2010) 등의 각본을 쓰고 연출했다. 현재 인하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강철창작단'을 이끌며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기도 하다. 송도국제도시를 배경으로 한 SF코미디를 다음 작품으로 구상하고 있다.



깊은 맛 우려낸 설령탕 60년

삼강옥은 중구 경동 95번지, 동인천에서 옛 청과시장 물산회사 건물을 지나 배다리 쪽으로 직진해 가다가 근래에 들어선 '아이본 산부인과' 병원을 지나치기 바로 전 샛길로 들어서자마자 왼편으로 두어 집 건너에 있다. 이 샛길로 쪽 올라가면 경동을 거쳐 기독교병원 방향으로 올라가게 된다. 지리가 공연히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나 채미전거리 대로에서 불과 몇 발짝 들어서지 않는 곳에 있으니 찾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 1950년대 6·25 직후부터 이 자리에서 해장국밥을 팔기 시작해 오늘에까지 이르러 사실 웬만한 인천 토박이 인사들은 눈 감고도 찾을 일이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나마도 잘 모를 것이다.

글. 김윤식 시인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1950년대 채미전거리에 밥집으로 문열어

아무튼 이 집은 평양옥과 더불어 국밥류를 파는 음식점으로는 인천에 남아 있는 제일 오래 된 집의 하나다. 노포(老鋪)임에 틀림없으나 밥집이라는 점에서 그 말을 붙이기가 썩 어울리지는 않는 듯하다.

지금은 설령탕으로 정평을 얻고 있지만, 삼강옥의 역사는 본시 해장국밥으로 비롯되었다. 현재 주인인 김주숙 여사의 시아버지인 고 박재황씨가 1950년 개성에서 피난해 내려와 이곳에 정착해 밥집을 내면서 시작된 것이다. 창업주 박재황씨는 북녘 고향에서 이미 이 비슷한 음식점을 경영해왔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

당시 이곳은 매우 변화하면서 인천 유일, 최대의 청과시장이 잇대어 자리잡고 있던 곳이어서 음식점의 입지로서는 제대로 된 요지였다. 물산회사니 채미전거리니 하는 말들이 남아 있을 정도로 연중 엄동설한을 제외한 기간 동안은 과실이나 채소 도소매상인과 그것을 구매하려는 중간상인, 일반 손님들, 거기에 지게꾼, 구루마꾼 노동자들까지 뒤엉켜 매일 성시를 이루던 곳이었다.

김장철 같은 때는 세상이 온통 무, 배추투성이를 이루던 곳. 1980년대의 글이지만 신태범 박사의 기록대로 “현재 채미전거리는, 철로변에는 과일 도매상과 농약종자상이 뽁뽁하게 서 있고, 건너편 청과회사 쪽에는 넓은 야채시장과 제수를 파는 모전(毛麋), 고추 마늘 도매상이 즐비하게 자리하고 있다. 채미전 대신에 들어선 청과물시장 때문에 아직도 채미전거리는 명실공히 청과물 거래의 중심지로 군림하고 있다”고 할 정도였으니 삼강옥이 크게 번창했을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전에도 역시 신 박사의 글을 인용해 ‘시장과 인접한 곳에 백반집이 발달한다.’는 이야기를 어느 원고에서 기술한 바 있지만, 인파가 들끓는 시장 근처에는 먹을거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치다. 그 인파의 끼니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강옥이 청과시장 근처에서 문을 연 것도 그 같은 이치다.

해장국만으로 하루 쌀 한 가마 소비

특히 새벽부터 물건을 받아 운반하랴, 손님 대하랴 종일 노전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려면 '아침 한 끼만이라도 맛있고, 따듯하고, 배부르게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상인들은 가졌을 것이고, 그에 부합한 것이라면 김이 쫄쫄 오르는 뜨끈한 국물에 기름지고 든든한 해장국밥 뿐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비라도 내리거나 해서 스산한 날 새벽이라면 훈훈하게 몸을 덥혀 주면서 쓸쓸한 속을 달래 주는 국밥이 제격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곳 새벽 장꾼들을 위해 해장국밥을 주로 판 것이다. 밥집 경영을 해 본 경험과 정성이 담긴 해장국 맛이 점차 입소문을 타면서 배다리 삼강옥이 유명해진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번창을 이루었는지, 그 당시 어느 날은 해장국만으로 하루에 80kg 쌀 한 가마를 팔기도 했다는 것이다. 가게 앞마당에는 국물을 우려낸 쇠뿔가 지천으로 쌓여서 행인의 발에 썰 정도였다고 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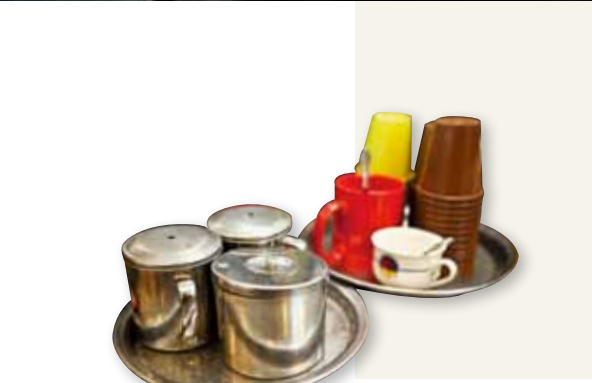
이런 전설같은 해장국 이야기를 간직한 삼강옥이지만 이제 한 달에 80kg 쌀 한 가마를 파는 상황이 되었다. 지금은 물론 설렁탕이 주 메뉴로 바뀌었지만, 삼강옥의 운명이 거의 중구의 몰락, 쇠퇴와 동궤(同軌)를 걷는 것이다. 변화했던 도심이 모두 다른 구로 옮겨지고 대표 청과시장마저 그 추세에 따라 이전해 간 것이다.

무릇 인간사처럼 밥집에도 영고성쇠가 있겠지만 그 맛, 그 음식이 변함없이 그대로인데 어쩌면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전혀 느끼하지 않은, 맑고 담백한 국물의 설렁탕과 대파와 고기가 어우러진 얼큰한 삼강옥 육개장의 진미는 먹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그리로 발길을 돌리게 하는 데도 말이다.

“그렇지만 그 맛은 물거나 알지 않습니다. 사골과 머리고기, 도가니 등을 적정온도와 시간 동안 고아 깊은 맛이 우려납니다. 60년 역사가 빚어낸 흥내 낼 수 없는 노하우겠지요. 3대가 하는 가게로 역사와 전통이 있고 설렁탕과 도가니, 수육이 대표 메뉴예요.”



1 1960년대 삼강옥
2 삼강옥 김주숙 사장의 남편과 아이들, 1960년대 3 1990년대 일본에서 김주숙 사장이 영화배우 메릴스 트립과 찍은 기념사진



도가니탕, 수육 더 없이 맛깔스러워

이 글은 인터넷 어느 블로그에 올라 있는 내용이다. 삼강옥의 설렁탕 국물에 대해서, 그리고 도가니탕과 수육에 대해서 더 없이 맛깔스럽게 아주 적절한 표현을 구사했다. 어쩌면 대단한 미식가로서 식미 감별에 뛰어난 감각을 지니신 분으로 적어도 우리 이상의 연령이 아닐까 싶다. 이 글을 읽으면 삼강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공연히 고마운 느낌까지 든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지만 삼강옥을 생각하면 인천의 옛 어른들이 떠오른다. 의사였고 적십자인천지사를 맡았던 고 이영호 박사, 배다리에서 소아과를 경영하셨던 김관철 박사, 한만호 노인회 회장, 노창현 전 부시장 같은 분들을 이따금 식사 때 뵈 수 있었다.

해방 전 일본 프로야구 한큐 브레이브스(현 오릭스 버팔로즈) 팀에 활약했던 유명 야구인 유완식 선생의 모습을 자주 뵈 수 있었는데, 선생은 대단한 단골이어서 몇 년 전, 별세 직전까지 출입했다. 선생이 그토록 친밀하게 삼강옥을 드나든 것은 경영하던 상가가 배다리 쪽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인근의 인천고 야구팀이 과거 우승을 하면 여기 와서 해장국을 먹곤 했다는 이야기는 맛도 좋고 또 지리적 이점도 있어서였을 것이다. 특이한 것은 주인 김주숙 여사가 소싯적에 교사 노릇을 했었기 때문인지 교육계 인사들의 출입이 많았다는 점이다. 요즘 인사로는 인천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김경룡 선생, 새얼문화재단 자용택 이사장, 인천문인협회 여성 원로 문인 이숙 선생, 인천일보 주필 조우성씨, 역사자료관 강덕우, 강옥엽 박사, 중구문화원 최춘자 원장 그리고 여성단체 회원들의 면면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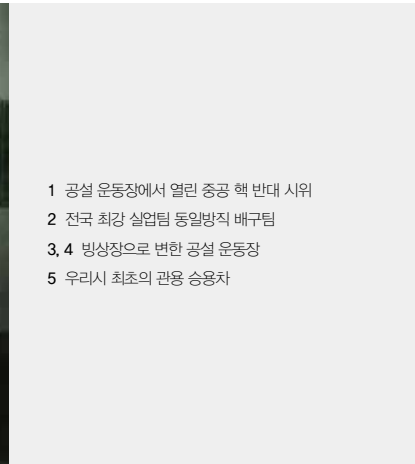
한때는 동창생 김영수 군과 자주 출입을 했었는데 그가 불의 사고로 떠난 후 자주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다. 어쩌다 배다리 쪽을 걷게 먼 먼발치에서 삼강옥 간판을 바라보며 저 상호는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삼강'이 아니라 '삼강(三江)'이라고 중얼거리는 것이 고작이다. 삼강 상호는 애초 박재황씨가 붙인 것이라고 한다.



너도 나도 규탄하자 ‘중공’ 핵실험

인천(仁川)이란 이름을 얻은 지 올해로 꼭 600년이 된다. 지나 온 시간을 되새겨 보며 인천의 미래를 그려 본다. 문헌 등을 통해 인천의 과거를 되돌아 볼 수도 있지만 본지에서는 사진을 통해 시간을 더듬어 보기로 했다. 그동안에 각종 매체에 자주 실렸던 개항기와 일제강점기의 사진은 뛰어 넘고 이 지면에는 1960년대와 70년대 이른바 ‘산업화’ 시절의 사진을 주로 게재한다. 그 속에 땀 흘리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코 흘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글. 유동현 본지면집장 사진. 인천시청 앨범 발췌



- 1 공설 운동장에서 열린 중공 핵 반대 시위
- 2 전국 최강 실업팀 통일방직 배구팀
- 3, 4 빙상장으로 변한 공설 운동장
- 5 우리시 최초의 관용 승용차

배고랐던 시절, 아이들은 꽃을 따먹었다. 빨간 사루비아와 하얀 아카시아꽃은 잠시 허기를 달래는 좋은 간식거리였다. 그런데 1965년 봄 선생님들은 그 꽃들을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다. ‘중공’에서 날아온 낙진, 즉 ‘죽음의 재’가 꽃에 묻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배가 너무 고했다. 아이들은 ‘빨갱이 쟁개놈들’하면서 중공을 욕하고 꽃을 따먹었다.

1964년 10월 16일 중공(현재의 중국)은 신장위구르 사막에서 첫 원폭실험을 실시했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 이어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한 것이다. 가장 많이 놀란 것은 대한민국. 이듬해 우리나라 곳곳에서 중공의 핵실험 반대 쫓기 대회가 열렸다. 인천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공설운동장에 모여 규탄대회를 대대적으로 열었다. (사진)

마오쩌둥(모택동)이 이끌던 당시 중공은 ‘죽(竹)의 장막’으로 불리며 외부 세계와 거의 교류가 없었다. 우리와는 북한, 소련과 더불어 철천지 원수로 지내는 나라였다. 1992년 한·중 수교가 체결되면서 두 나라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 이후 아이들은 하늘로 날아오는 중공 낙진이 묻은 꽃 대신에 바다를 통해 물밀듯 들어오는 중국제 주전부리를 먹기 시작했다.

인천에는 통일방직이라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한때 여자배구단을 운영했다. 이 배구단은 주전 대부분이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될 정도로 60년대 내내 천하무적이었다. 각종 대회에 우승하고는 어김없이 인천시청을 방문했다.(사진2) 현재 인천 연고 프로여자배구팀은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이다. 흥국생명 배구단은 지난 1971년 통일방직 배구단을 인

수, 태광산업 여자배구단으로 창단했다. 지난 2005년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로 새롭게 옷을 갈아입고 프로에 진출했으며 2009~2010시즌부터 인천 연고팀으로 활약하고 있다. 인천은 축구, 야구 등 서양의 스포츠들이 들어온 개항장이었다. 겨울철 대표적 스포츠 스케이트도 비교적 많이 보급되었다. 1925년 제1회 전(全)인천빙상경기가 한적한 교외였던 송림리(현 동구 송림동)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정식 빙상경기장이라기 보다 공터에 물을 채워 얼린 경기장이었다. 당시 신문에는 스케이트를 ‘수켓’이라고 표기했고 경기장을 ‘수켓장’이라고 불렀다. 도원동에 운동장이 들어선 30년대 이후부터는 각종 스케이트 경기를 이곳으로 옮겨 치렀다.(사진3, 4) 일반인들에게도 공개가 되었는데 종종 선수들의 연습이나 경기

이후에나 유료 입장이 되어서 타다보면 기온이 올라가 물반 얼음반 위에서 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운동장 보다는 주안, 부평 등에 있는 논이나 공터의 사설 스케이트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다. 그곳에는 비닐 천막으로 만든 간이 임시매점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스케이트장에서의 최고의 간식 오펅(어묵)이 한술 가득이 끓고 있어 비닐 천막 안은 항상 수증기로 뿌연게 김이 서려 있었다. 이제 자동차 소유는 자랑거리 축에도 끼지 못한다. 그러나 개인은 물론 관공서조차 자동차를 운영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인천시장이 정식으로 처음 관용 승용차를 사용한 것이 1966년이었다. (사진5) 미군 측의 도움이 있었는지 당시 윤감로 시장이 미제 승용차 앞에서 미군 장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1월 공연 · 전시 Calendar

SUN	MON	TUE	WEN	THU	FRI	SAT
		1	2	3	4 꿈을 가진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이야기 '꿈꾸는 거북이'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 3천원 ☎505-5995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어린이뮤지컬 '해님달님-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서구문화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40분, 오후 3시 30분 1만 5천원 ☎사랑극단 꼬마세상 010-2898-0014	18 인천시립극단 제64회 정기공연 <애들이, 용궁 가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성인 1만5천원, 청소년 1만2천원 ☎인천시립극단 420-2790 리어석기타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클래식 2013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 3천원 ☎505-5995	19 인천시립극단 제64회 정기공연 <애들이, 용궁 가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성인 1만5천원, 청소년 1만2천원 ☎인천시립극단 420-2790 콘서트오메가'마술피리,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출 오후 4시 / 6천원, 학생 무료 ☎760-3457
20 인천시립극단 제64회 정기공연 <애들이, 용궁 가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성인 1만5천원, 청소년 1만2천원 ☎인천시립극단 420-2790	21	22 인천 정명 600년 맞이 <2013 신년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052	23 인천시립극단 제64회 정기공연 <애들이, 용궁 가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성인 1만5천원, 청소년 1만2천원 ☎인천시립극단 420-2790	24 인천시립극단 제64회 정기공연 <애들이, 용궁 가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성인 1만5천원, 청소년 1만2천원 ☎인천시립극단 420-2790	25 인천시립극단 제64회 정기공연 <애들이, 용궁 가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성인 1만5천원, 청소년 1만2천원 ☎인천시립극단 420-2790 가족뮤지컬 'NEW 어린이난타'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오후 4시 / 3만원 ☎500-2000	26 제13회 YMCA알핀로제 어린이요들단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YMCA알핀로제 어린이요들단 010-3287-9739 인천시립극단 제64회 정기공연 <애들이, 용궁 가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성인 1만5천원, 청소년 1만2천원 ☎인천시립극단 420-2790 가족뮤지컬 'NEW 어린이난타'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2시, 7시 / 3만원 ☎500-2000 드로잉 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출 오후 2시, 5시 / 1만원, 학생 무료 ☎760-3457
		인천시립극단 제64회 정기공연 <애들이, 용궁 가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성인 1만5천원, 청소년 1만2천원 ☎인천시립극단 420-2790		30 인천시립극단 제64회 정기공연 <애들이, 용궁 가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성인 1만5천원, 청소년 1만2천원 ☎인천시립극단 420-2790	31 인천시립극단 제64회 정기공연 <애들이, 용궁 가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성인 1만5천원, 청소년 1만2천원 ☎인천시립극단 420-2790 블랙라이트 퍼포먼스극 '행복한 무지개물고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출 오전 10시 20분, 11시 20분 1만 5천원, 단체 1만원 ☎교육극단 보물상자 819-1002	
27 송도청소년교향악단 베토벤교향곡 시리즈-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초대 ☎송도청소년교향악단 816-7257 인천시립극단 제64회 정기공연 <애들이, 용궁 가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성인 1만5천원, 청소년 1만2천원 ☎인천시립극단 420-2790	28	29	30	31		

이달의 展
exhibition

- ~1월 13일 즐거운 나의 집-노동자들의 도시, 인천 / 인천아트플랫폼
- 1월 01일~1월 31일 천재화가의 영감으로 감성두뇌를 자극하는 명화체험전 '와글와글 미술관' 인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1월 04일~1월 31일 기획전시 '지역, 미술을 밝히다 展작' /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 1월 11일~1월 17일 작가 미개 캘리그라피 전시전<손으로 마음을 쓰다>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1월 18일~2월 22일 <2012 플랫폼 아티스트> / 인천아트플랫폼

인천시립극단 제64회 정기공연 <애들이, 용궁 가자>



우리의 전래설화 <별주부전>이 인천시립극단에 의해 다시 태어난다. 인천시립극단은 매년 <바람의 비밀> <어린 왕자> 등 전 연령대의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가족극으로 명품어린이공연의 진수를 보여왔다. 자라의 충성스러움과 토끼의 기상천외한 꾀의 대결을 보여주는 원작과 달리 <애들이, 용궁가자>는 이 둘의 관계를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상대방을 속여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힘을 합치면 최선의 선택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일시 1월 18일(금) ~ 2월 3일(일)
평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 주말 오전 11시, 오후 2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1만5천원, 아동 · 청소년 1만2천원
문의 인천시립극단 420-2790

인천&아츠 공연 인천 정명 600년 맞이 <2013 신년음악회>



2013년 계사년을 맞아 1월 2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 정명 600년 맞이 신년음악회>가 열린다. 태종 13년(서기1413년)에 지명되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확장되고 발전한 인천의 밝은 미래를 그리는 이번 공연은 인천시립예술단의 다채로운 릴레이 공연으로 꾸며진다. 밝아오는 새해의 기상을 표현한 인천시립무용단의 무대를 시작으로 한 해의 바람을 정성스레 읊는 인천시립극단의 '새해의 기도'와 신명나는 사물놀이가 이어지며, 금난새 지휘자의 명쾌한 해설을 곁들인 인천시립교향악단과 인천시립합창단의 연주는 감동적인 멜로디를 전한다. 밝아오는 새해의 희망 속에서 인천 정명 600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봄으로써 인천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시 1월 22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문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052

관객들이 먼저 알아보는_커피콘서트



2008년에 시작해 지난 5년간 2만5천여 명의 관객들과 만나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커피콘서트>가 2013년에도 열 번의 무대를 선보인다. 관객들은 이 공연의 매력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양한 장르를 즐길 수 있어요”

오케스트라와 클래식을 비롯해 오페라, 국악과 재즈, 아가펠라, 뮤지컬, 타악, 대중가요 등 공연으로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장르가 무대에 오른다.

“친절한 해설이 귀에 쏙 들어와요”

각 공연의 주제 또는 구성에 대한 알찬 해설은 무대와 관객석의 거리감을 좁혀주며, 흥미 유발과 편안함을 동시에 안겨준다.

“뛰어난 아티스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자신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예술가들은 이곳에서 성장 과정과 가족, 무대 뒤 숨겨진 이야기 등을 꺼내 놓으며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하기도 했다.

“티켓 가격에 놀랐어요”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과 경제난으로 삶이 팍팍해진 요즘, 단돈 1만원으로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커피콘서트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휴식 같은 공연이다.

“갓 뽑은 신선한 커피향이 마음을 설레게 해요”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 두 종류의 커피를 겨울에는 뜨겁게, 여름에는 차갑게 즐길 수 있다. 혹, 공연 전에 커피를 즐기지 못한 관객들을 위해 공연이 끝난 후에도 서비스한다.

이러한 매력으로 관객의 맘을 사로잡는 <커피콘서트>가 2013년에는 기존보다 더 섬세하게 프로그램을 구성, 시리즈의 완성도를 높였다. 피아니스트 김정원, 첼리스트 양성원이 탄탄한 연주력으로 프로그램의 중심축을 잡아주는 가운데, 반도네오니스트 레오 정, 풍류피아니스트 임동창, 재즈 보컬리스트 말로가 다채로운 빛깔을 더해준다. 명배우 홍지민, 이윤표가 꾸미는 뮤지컬 <메노포즈> 갈라와 포크그룹 여행스케치, 유쾌한 여섯 남자 모티브 싱어즈의 무대는 커피콘서트에 발랄함과 생기를 더해준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의 마임아티스트 고재경이 펼치는 마임콘서트, 박완서의 소설 한편을 배우들이 입체적으로 읽어주는 낭독극 <그리움을 위하여> 등 접하기 힘든 색다른 장르도 만날 수 있다.



송도 6·8공구에 대단위 상업시설·주거단지 조성



우리시가 재정난 극복을 위해 매각한 송도 6·8공구 34만여㎡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제시했다.

시는 지난달 11

일 시청에서 송도 6·8 공구의 향후 개발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개발시행사인 제네럴에쿼티파트너스 권지훈 대표는 송도 6·8공구의 전체적인 개발방향과 향후일정을 발표하면서 “송도를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한국의 대표도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유기적 기반시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네럴에쿼티파트너스는 송도 6·8 공구 공동주택 단지인 A1, A3 블록을 5천여 세대의 주거단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상업업무 단지인 R1블록은 서울 삼성동의 코엑스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또 국제업무도시의 지원기능을 소화할 수 있는 업무시설, 편의시설, 상업·판매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며 2018년 준공이 목표다.

문의 : 시 예산담당관실 ☎440-2242

강화 본도~석모도 연륙교 내년 착공



강화도와 인근 섬인 석모도를 잇는 삼산연륙교가 오는 2017년 말 완공된다.

시는 강화군 내가면 황정리와 삼산

면 석모리를 잇는 왕복 2차선, 1.54km 길이의 삼산연륙교 기공식을 지난해 12월 24일 가졌다. 공사는 오는 2월부터 시작된다. 국비 134억원, 시비와 군비 16억7천만원씩 총 167억4천만원이 예산으로 확보됐다. 2017년까지 투입되는 전체 사업비는 849억5천만원이다.

시는 다리가 개통되면 강화 본도와 석모도를 오가기 위해 배편을 이용할 수밖에 없던 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강화군 ☎930-3733

체납 자동차세 100억원 징수

우리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최첨단 스마트폰을 활용해 자동차세 체납액 가운데 100억4천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2011년도 징수액(30억 여원) 대비 333%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지난해 초부터 낮 시간대 번호판 영치와 징수 관련 전 직원

이 참여하는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여왔다. 한편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지방세법 제131조와 국세징수법 제46조에 따라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할 수 있다.

문의 : 세정과 ☎440-2632

인천AG조직위, 마라톤코스 선정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최근 마라톤코스 선정위원회를 열어 송도 센트럴파크를 출발, 구도심권을 경유해 서구경기장 메인스타디움에 도착하는 42.195km의 마라톤 코스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코스는 송도신도시를 기점으로 송도3교를 넘어 해안도로~신항사거리~동인천역~송림오거리~재능대학 앞을 통과해 청라국제도시와 서구경기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마라톤코스 선정안은 추후 건설 예정인 청라국제지구의 도로 신설계획에 따라 일부 수정이 가능하며, 최종 수정 후 2013년 말 아시아 올림픽평의회(OCA)의 승인을 거칠 예정이다.

문의 :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458-2373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안’ 마련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섬지역의 효율적 시설물 관리와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을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군·구에서 관리해 오던 소규모 수도시설 업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 제정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조치다.

상수도본부는 관리 대상시설 328곳 중 아직 인수하지 못한 강화군 246곳과 옹진군 66곳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인수받아 내년 부터 전체 시설물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 섬지역의 지방상수도 보급 확충과 부적합 시설물 개선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시설물을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도입, 마을 주민이 식수문제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720-2182

인천소방본부, 중형 소방헬기 사업 계속 추진



인천소방안전본부가 중형급 소방헬기 도입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소방본부는 그동안 중형급 헬기

도입사업(180억)과 관련, 납품기한 종료에 따른 계약해지로 제작사 측에 대금회수를 통보했다. 이후 제작사는 지난달 법원에 조정신청을 내고 지체상금 17억8천만원 가운데 96%인 17억880만원을 부담하고 NVG계기판 조명설비, NVG용 가글 등 야간운행장비 3종, 6억여 만원을 보상에 주기로 했다. 따라서 소방본부는 제작사와의 조정과정을 거쳐 정상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섬 지역에 대한 항공 구조·구급 활동을 중형급 헬기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소방안전본부 ☎870-3407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센터 오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센터가 지난해 12월 18일 송도 미추홀타워 1층에 문을 열었다.

홍보센터에는 아

시아경기대회의 역사와 주요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과 공공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 검색존이 마련돼 있다. 마스코트와 함께 하는 포토존, 미리 만나보는 경기종목 체험존, 센터 방문을 추억에 남길 수 있는 전자방명록 작성 등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있다.

김영수 조직위원장은 “AG 홍보센터는 2002 부산AG이나, 2012 세계여수엑스포와 같은 타 행사의 홍보관처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작은 공간에 실속있는 콘텐츠로 꾸몄다”며 “조직위와 AG홍보센터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자연스런 홍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458-2372

포토뉴스

photo news



1년 뒤의 나에게...

2013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계획과 다짐으로 알찬 한해의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지만, 자칫 흐지부지되기 쉬워진다.

이럴 때 1년 뒤의 나에게 편지를 쓰면서 새해 결심을 새롭게 해보면 어떨까? 그것도 오랜만에 손편지로 말이다.

영종대교 기념관에는 1년 뒤에 편지를 배달해주는 느린 우체통이 있다. 1년 전 오늘의 꿈과 희망을 확인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다. 1년 뒤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새해 결심을 하면서 어제보다 더 성숙한 오늘과 내일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후회없는 한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느린 우체통처럼 뒤늦게 배달되는 편지는 월미공원에서도 가능하다. 그 곳에도 1년 뒤에 배달되는 소망엽서함이 있다. 1년 뒤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자신에게 한 장의 편지를 써보자.

느린우체통 : 영종대교 기념관 소재(☎560-6400)

소망엽서함 : 월미공원 안내소(☎765-4131~2)

토지주택공사 조사특위 3월까지 연장



인천광역시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지난해 11월 26일 의결을 거쳐 제안한 '제3연륙교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과 '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11월 28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05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조사특위는 제3연륙교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제3연륙교는 영종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를 잇는 연계 개발의 핵심기반시설로써, 국토해양부는 이미 1997년 인천도시기본계획과 2003년 LH공사의 영종·청라지구 개발계획에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포함하여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2연륙교에 대한 MRG문제 등으로 인천시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음을 성토했다.

국토해양부와 관련기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변경하고 국무총리실에 중재를 요청할 것,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향후 검암IC 설치와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 영종지구 개발 등 교통수요 급증이 예상되기에 인천국제공항의 안정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제3연륙교 조기 건설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제18대 대통령 후보에게 제3연륙교의 조기 착공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첫째, 정부는 더 이상 인천시민의 불편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의 소극적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고 전향적 자세로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향후 예상되는 교통수요 등을 감안하여 즉시 착공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국토해양부, 인천광역시 등 관련기관은 소모적 협의를 중단하고 국무총리실은 즉각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대통령 후보들은 반드시 제3연륙교 조기건설을 대선공약에 포함할 것을 건의한다.

조사특위는 활동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연장 이유는 특위 활동에서 마련된 협의사항과 사업계획의 정상 추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향후 차기정부 출범 시 대상 사업들에 대한 올바른 방향 제시 및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방콕시의회 대표단 방문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화) 시의회와 우호 교류 방문의 일환으로 방문한 태국 방콕시의회 대표단 (단장 : 감릉 박룡

락 제2부위원장) 13인과 환담했다.

이성만 의장은 인천시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하며, 양도시간 우호 교류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반자적 입장에서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와 방콕시의회는 2007년 7월 우호교류협정 체결후 상호 우호교류 방문계획에 따라 지난 2011년 3월 인천시의회에서 방콕시의회 방문(9명)에 따른 답방이다.

‘인천대법인화 현안 해결...’ 간담회 열어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해 11월 28일 (수) 16시 시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인천대 법인화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인천대와 인천시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 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정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각 기관의 기관장들은 머리를 맞대고 진솔한 대화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인천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으나 지속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협의를 통하여 인천대 현안 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200만개 마스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달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해 11월 27일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마스크 전달식을 시의회 의장실에서 이성만 시의회의장, 기증

자인 박춘호 시드니환경 대표와 함종길 (주)씨지엔에프 대표, 조건호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시의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생필품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물품을 전달하기는 처음이다. 시민과 소통의 날 시의회 의장을 면담을 한 시민이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물품을 기증하고 싶어 하는 독지가가 있는데 전달방법 등을 몰라 고민하고 있는데 시의회가 연결고리를 맺어주는 것이 어떠냐고 소개해줘 오늘 뜻 깊은 전달식이 이루어졌다.

기증받은 200만개(시가 1억 6천만원 상당)의 마스크는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각 군·구 푸드마켓과 연계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 및 푸드마켓 이용자 등에게 골고루 배분할 계획이다.

로컬푸드, 생활예술활성화 지원 조례 토론회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해 12월 6일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및 강병수 시의원 주최로 인천광역시 로컬 푸드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간담회 개최 목적은 인천지역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도출하며 이에 관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시안을 마련하여 인천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호놀룰루시의회 대표단 맞아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해 11월 19일 (월) 인천광역시의회와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위하여 방

인한 미국 하와이 주 호놀룰루시의회

대표단 6인을 영접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이성만 의장은 인천시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하며, 양도시간 우호교류 관계의 시작과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반자적 입장에서 향후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동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금년 7월 우리 시의회 대표단이 하와이 호놀룰루시 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차원의 교류협력관계를 증진하고자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호놀룰루시의회 대표단이 방문함에 따라 금번 양도시간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Infobox

1월 문화예술에 참여하세요

울목도서관은 새해를 맞아 다양한 문화강좌를 마련했다. 문화에 관심있는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

1월 도시인문학 강좌

제목 : 2013년도 도시인문학강좌

[근대도시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묻다]

운영 : 1월 26일(토) 오전 10시

교육주제 : 해외의 역사문화도시(2) 런던의 도심재생사업과 시민운동

강사 : 염운옥(고려대)

장소 : 울목도서관 본관 2층 소극장

접수방법 : 울목도서관 본관 1층 안내데스크 사전 방문 및 전화 신청

문의 : 770-3804

참고사항 : 인천시민 및 청소년(10강 이상 참가한 수강자에게 수료증 교부)

1월 어린이 상시 프로그램

운영기간 : 1월 2일(수) ~ 31일(목)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대상	비고
영어교육컨텐츠 상영	매주 화, 목, 금 오후 3시	누구나	
『이야기보따리 술술』 (그림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매주 화, 목, 토 오후 4시	누구나	
『가족과 함께 레다~ 액션』 (가족 DVD 관람석 운영)	상시	2~4인 가족 (12세 미만 보호자 동반 필수)	신청 후 이용
『독서왕 울목 밤불이』 (울목 밤불이 카드 도장 받기)	상시	5세~초등생	매월 최고점자 각 1인 선정 후 사서체험 및 선물(도서) 증정
독서통장 발급	상시	반납권수 20권 이상인 5세~초등생	

운영장소 : 울목도서관 별관 어린이실

문의 : 770-3811, 3808

인천여성가족재단 출범

사회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여성가족 정책 발전에 부응하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커진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이런 필요성에 의해 출범한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기관간의 헤드 쿼터 역할, 인천여성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1월 출범하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은 1실2부 수탁기관으로 구성된다. 여성가족분야 연구 및 정책개발, 교류협력, 전문가·여성사회교육을 통해 여성이 사회진출을 돕고 인천성별영향분석센터,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수탁기관이 된다.

시는 인천여성가족재단 설립을 위해 2010년 11월 준비단을 구성했고, 여성단체와 간담회, 연구공역을 거쳐 2012년 12월 인천여성가족재단 법인 설립했다.

문의 : 440-2693

사제동행 포토콘서트

사진전문 갤러리 배다리는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사진동아리 ‘淸’의 두 번째 전시회인 ‘사제동행 포토콘서트’를 연다.

사제동행 포토콘서트

전시 :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사진동아리 ‘淸’ 2nd 전시회

사제동행 포토콘서트

전시 타이틀 : experience(경험)

전시 기간 : 12월 30(일) ~ 2013년 1월 9(수)

휴관 : 매주 목요일

참여작가(학생, 졸업생) : 김지연(1학년), 강보경(1학년), 나다미(1학년), 허현진(2학년), 고영주(2학년), 김소리(3학년)

참여작가(교사) : 박종광, 박광균, 조정희, 조수진

제1기 여성복지관교육 수강생 모여라~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은 2013년도 제1기 여성사회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관심있는 시민의 많은 참여바란다.

제1기 여성사회교육

과목 : 전문기능양성자 및 실용생활 과정, 문화아카데미 및 특강 과정

교육기간 : 1월 4일(금) ~ 3월 22일(금)

모집대상 : 인천시 거주 18세 이상 시민

(일부과목을 제외하고 남성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한함.

접수기간 : ~1월 14일까지 (인터넷신청삭 마감)

신청방법 : 인터넷 수강신청

(여성복지관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후 온라인 수강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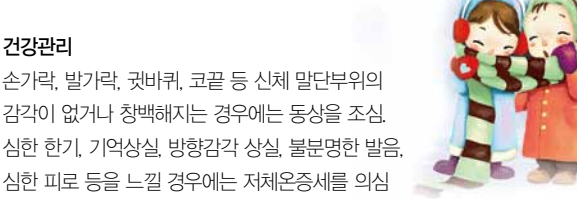
수강료 납부 : 인터넷 선착순 접수로 신청과 동시에 수강료 납부 진행

과목명	정원	수업요일	수업시간	수강료	재료비
한국기능사	20	수,목,금	10:00~13:00	6만원	12만원
일식조리기능사	30	월	14:00~17:00	3만6천원	10만원
한식조리기능사(야간)	30	월,수,금	18:30~21:30	6만원	15만원 교재별도
실전테크닉 피부&비만경락	20	화,금	10:00~13:00	4만5천원	8만원
자수&규방	20	화,목	10:00~13:00	4만5천원	10만원
악선요리	25	수	14:00~17:00	3만6천원	10만원
패백,떡,한과	25	월,화	10:00~13:00	4만5천원	16만원
후루룩 별미국수&상차림	30	수,금	14:00~17:00	4만5천원	15만원
홈베이킹& 디자인쿠키	30	월,수	14:00~17:00	4만5천원	16만원
퀼트로 만드는 생활소품	20	화	14:00~17:00	3만6천원	15만원
도전우리가요열창	30	금	14:00~17:00	3만6천원	8천원
독서지도사	20	금	14:00~17:00	3만6천원	3만원
취미로 즐기는 사진교실	20	목	14:00~17:00	3만6천원	카메라 개인준비
생활영어회화(아)	30	화,목	19:00~21:00	4만5천원	1만4천원

문의 : 440-6540

추운겨울 건강하고 안전하게

올해는 유난히 춥다고 한다. 건강관리는 물론 동파로 인한 재난관리에 더 유의해야 한다. 한파에 대비하는 건강관리법을 소개한다.



건강관리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 심한 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경우에는 저체온증세를 의심 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함.

급작스런 기온 강하시 심장 및 혈관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 노인 또는 병자가 있는 가정에 서는 난방에 유의.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의 보온에 유의하고 특히 머리부분의 보온에 신경 써야함.

외출 후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고, 당뇨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

동상에 걸렸을 때는 꼭 짙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하게 해주며 동상부위를 잘 씻고 말려야 함.

겨울운동 주의사항

운동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관절의 가동(稼動) 범위를 넓힘으로 써 부상을 방지하여야 함.

준비운동 강도는 몸에서 약간 땀이 날 정도가 적당하며 실내에서 실시. 운동은 가능한 실내에서 하는 게 부상위험을 줄일 수 있음.

옷을 겹쳐 입되 많이 입지 말아야 함.

고혈압 등 만성병 환자는 오후 실내에서 운동하는 게 좋음.

겨울엔 체온 유지를 위해 10~15%의 에너지가 더 소비되므로 운동 강도 를 평소의 70~80% 수준으로 낮추는 게 좋음.

술은 이뇨(利尿)· 발한(發汗) 작용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므로 등산·스키 등 운동 중에는 술 마시지 말 것.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충분히 보온을 실시 하여 감기를 예방하여야 함.

농산물도매시장 휴업일 및 영업시간 변경

2013년 1월1일부터 농산물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이 변경된다.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은 불편이 없도록 미리 알고 가길 바란다.

휴업일 : (당초)1월1일 (변경)신정부터 2일간(1월1일, 1월2일)

※ 정기휴업일 : 일요일, 신정부터 2일간, 설날부터 3일간, 추석부터 3일간

영업시간 : (당초)02:00부터 15:00까지 (변경)02:00부터 17:00까지

문의 : 440-4372

미추홀 문화프로그램 참여하세요

미추홀도서관은 겨울방학 특강을 마련했다. 방학을 알차고 풍성하게 보낼 유익한 기회다.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특별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대상	문의
겨울방학 특강	꿈나무 독서클럽	1월 3일(목) ~31(일)목	평생학습실 및 세미나실Ⅱ	초등학교 1~2	440-6662~4
	입체야 놀자			초등학교 3~4	
	체인지 리더십				
	북아트와 함께하는 역사여행				
	내 공부의 주인은 바로 나!				
과학야 놀자!					
겨울방학 독서교실 〈세계 문명속으로 go go〉		1월 14일(월) ~17일(목)	세미나실 1 (3층)	초등학교 3~4	440-6662~4
인천예고학생전		1월 23일(수) ~2월 10일(일)	미추홀터(1층)	전체	440-6643

상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대상	문의
미추홀 영화 상영		매주 토· 일 14:00	강당(지하1층)	—	440-6641~2
꿈나무터 문화교실	꿈나무터 극장	매주 화16:00	꿈나무터 문화교실(1층)	4세~초등 5학년	440-6647~8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세상	매주 목 10:40	꿈나무터 문화교실(1층)	미취학 아동	
책마중(관외)예약 대출·반납)서비스		1월 14일(월) ~17일(목)	예술회관예(지하2층) 미추홀도서관(1층입구)	미추홀도서관 회원 (타관회원-등록 후 이용가능)	440-6634~5

문의 : 440-6624

스노우 아이스페스티벌 행사

문학경기장 눈썰매장에서는 스노우 아이스페스티벌 행사를 연다. 관심있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운영기간 : 2013년 2월 17일까지

운영시간 : 평일 10시~17시, 토· 일, 공휴일 9시~17시 30분까지

위치 : 인천문학경기장 동문광장

요금

• 유아~어린이(만3세~만12세) 1만4천원

• 청소년~성인(만13세 이상) 1만5천원

50% 할인대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유아용 슬로프(폭 10M, 높이 2M, 길이 12M, 랜딩구간 60M)

성인용 슬로프(폭 20M, 높이 6M, 길이 30M, 랜딩구간 60M)

무료이용시설 : 눈썰매장, 얼음썰매장, 추억의 전시체험, 에어바운스, 트램블린, 미니기차, 배터리카, 눈높이동산

빙어잡기 : 5천원

문의 : 429-8309

Infobox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우리는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이 있는 부모가 예방접종을 누락하지 않고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정기예방접종 종류

BCG(파내용), B형간염,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DTaP, Td/Tdap), 폴리오(IPV),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폴리오(DTap-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13년 도입 예정)

휴대폰 문자전송을 통한 사전알림

-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 작성시 사전알림 서비스 수신에 동의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서비스 대상 :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
 - 발송 내용(예시)

(시·군·구청명)000여린이 폴리오4차 접종시작시기임을 알려드리니 보건소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휴대폰 문자전송에 의한 정기예방접종

- 사전알림 서비스 이용 절차
 - ① 정기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 작성시 사전알림 서비스 수신에 동의합니다.
 - ②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을 받을 휴대폰 번호를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에 정확히 기록합니다.
 - ③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관할 접종받았던 의료기관, 가까운 보건소 예방접종실 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7373~4)에 변경된 번호로 수정 요청합니다.

재난알리미 ‘앱’ 서비스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은 국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재난문자를 수신하고, 스스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대표 앱(app)인 ‘재난알리미(국가재난안전센터)’를 서비스하고 있다.

<재난알리미 ‘앱’>

기존3개 수신지역에서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이동 중에도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문의 : 870-3168

제4기 청년서포터즈 모집

인천국제교류센터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청년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서포터즈 4기 모집에 시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청년서포터즈 4기 모집

모집인원 : 총 1천명

모집기간 : 1월 30일(수)까지

활동기간 : 2013년 3월~11월(약 9개월)

모집대상 : AG참가국가별 서포터즈, 청년서포터즈 기자단

지원자격 : 20~30대

활동특전 : 우수서포터즈 ‘인천광역시장 명의 활동인증서 · 표창장’ 수여 및 해외 배낭여행 지원

문의 : 451-1724

2013년 인천항 정기 크루즈선 ‘Henna호’ 취항

중국 천진과 인천을 잇는 5만 톤급 정기 크루즈선이 2013년 5월 중국 노동절을 기해 첫 운행을 시작한다. 투입되는 선박은 관광객 2천여 명과 승무원 700여 명이 승선할 수 있는 Henna호로 인천에 연간 총 22회 입항하여 총 4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Henna호 취항을 위해 하이난 그룹의 장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초청하여 인천항 주변 관광지 및 항만시설을 소개하는 팸투어를 진행하는 등 이번 정기선 유치에 적극적 노력을 해왔다. 인천도시공사는 국제 크루즈선 입항에 맞춰 인천 관광안내데스크 및 주변 상권을 연계한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중국 관광객들에게 관광 및 쇼핑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행사 및 관광객 서비스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문의 : 260-5331

‘인천이야기 사진공모전’에 참여하세요

우리는 ‘2012인천이야기 사진공모전’을 연다. 인천과 희노애락을 함께 한 순간이 담긴 사진을 사연과 함께 보내면 된다.

공모기간 : 2013년 1월 18일까지

공모내용 : 소재장르없이 인천에서 있었던 희노애락이 담긴 사진과 에피소드(인물, 풍경사진 제한없음)

발표일 : 1월 28일

당선작발표 : 이벤트 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발표

문의 : 440-8303

스트레칭만 제대로 해도 운동효과 ‘굿’

글. 함상욱 계산국민체육센터 과장

health



춡다고 여러 겹의 옷을 꺼입거나 두꺼운 옷을 입게 되면 어깨에 가해지는 무게도 여름에 비해 5배에서 10배까지 늘어난다. 게다가 춡다고 몸을 오랫동안 웅크리는 자세를 지속하기 쉬운데, 이 자세는 어깨를 심하게 긴장시킨다. 특히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인에게서 어깨 통증은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기는 어깨 통증의 대부분은 하루 내에 회복된다. 그러나 회복 전에 다시 또 과다한 사용으로 손상이 진행되면 염증이 생기는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깨에 쌓인 피로와 긴장은 그때그때 바로 풀어주는 것이 좋다. 어깨 통증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바로 스트레칭이다. 추운 겨울철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집이나 직장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을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한결 어깨가 편하고,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다. 만약 스트레칭에도 통증이 계속 된다면, 어깨질환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특징이 있으므로 전문의를 찾아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스케이트나 스키, 보드 등 겨울철 스포츠를 즐기기에 전에 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야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강도가 낮은 걷기 운동이라 할지라도 출발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트레칭은 관절의 운동 범위를 늘려주고 유연성을 길러줘 돌발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적응력을 키워준다. 또한 몸을 충분히 풀어준다는 것은 신체의 균형을 잡아줘 바른 자세로 걷게 해준다. 또 운동 후의 스트레칭과 정리운동은 근육 내의 피로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도와줘 운동 후의 근

육통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스트레칭의 핵심은 저항의 한계를 느끼는 지점까지 운동범위를 늘리는 것이다. 약간의 통증이 있을까 말까 한 정도까지만 근육이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해야한다. 근육의 유연성을 늘리려면 한 자세를 30초에서 1분 정도 유지해주어야 한다. 그동안 숨을 멈추지 말고 정상적인 호흡을 유지한다. 이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주면 더 좋다. 스트레칭을 중단한 뒤 약 2주 정도가 지나면 근육의 유연성은 운동 전 상태로 돌아간다. 때문에 일주일에 세 번 이상으로 스트레칭을 일상화해야 한다.

겨울철에 빙판길이나 운동 중 발목을 접지르거나 빠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병원가서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발목을 접질리면 인대 손상이 동반될 수 있다. 손상된 인대는 관절이 불안정해져 반복적으로 접질리게 되며 결국 연골까지 손상돼 심한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인대는 다치고 난 후 아무 치료 없이 방치했을 경우 다지기 전 상태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손상 초기에 부목 등으로 고정해줘야 한다. 또한 급성기가 지난 후 지속적인 근력강화 등을 통한 회복운동을 해줘야 한다. 회복 후 약해진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간단한 운동방법은 양치질 할 때, 설거지 할 때, 휴식 할 때 등 서 있는 기회가 되면 다친 발로 서 있도록 한다. 그렇게하여 다리에 힘이 생기면 일직선으로 달리기, 좌우로 달리기, 점프하기 등으로 균형감각을 기르도록 한다. 이런 방법으로도 효과가 없으면 인대를 수술해야 한다.

2013 인천시 사자성어 ‘연비어약(鳶飛魚躍)’

글. 이용남_본지편집위원

2013 인천시의 시정철하이 될 사자성어로 ‘연비어약(鳶飛魚躍)’이 선정됐다. 연비어약은 시경(詩經) 〈대아(大雅)〉 〈한록편(旱麓篇)〉에 나오는 시구로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뛰어 연못에 논다’라는 뜻을 지녔다.

瑟彼玉瓚[슬피옥잔] 산뜻한 구슬 잔엔 / 黃流在中[황류재중] 황금 잎이 붙었네 / 豈弟君子[기제군자] 점잖은 군자님께 / 復祿攸降[복록유강] 복과 녹이 내리네 / 鳶飛戾天[연비려천] 솔개는 하늘을 날고 / 魚躍于淵[어약우연] 고기는 연못에서 뛰네 / 豈弟君子[기제군자] 점잖은 군자님께서 / 遐不作人[하부작인] 어찌 인재를 잘 쓰지 않으리.

인천이 GCF 사무국을 오픈하고,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만물의 우주자연의 원리에 따르면서 도약하고 활기차게 비상하자는 큰 의미를 담았다.

연비어약(鳶飛魚躍)은 시민공모, 시청의 자체조사, 한문에 조예가 깊은 한문학자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은 다양한 사자성어 중 내부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인천시는 시민의 마음과 마음을 모으고 2013년 시민과 함께 뛰고자 2012년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2013 사자성어를 공모했다. 사자성어에는 GCF 사무국 유치로 높아진 인천의 국제적 위상과 세계로 나아가는 비전을 담고, 2013년 시민이 바라는 인천을 표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시민들의 열띤 성원에 힘입어 100여 개의 사자성어가 공모됐다.

시민들이 보내준 사자성어에는 내년 인천을 도약하는 해로 삼고, 끊임없이 노력해 큰 성과를 거두고, 시민과 시가 합심해 더 많은 비전을 갖고 나라를 펼치자는 내용의 사자성어가 많았다.

鳶飛魚躍

『연비어약(鳶飛魚躍) 출처』

시경(詩經) 의미

‘하늘에 솔개가 날고 물 속에 고기가 뛰어난다’는 의미. 만물이 저마다 법칙에 따라 살아가야 천지의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

채근담 의미

[채근담] 好動者是 雲電風燈이요 嗜寂者是 死灰槁木이니라 須定雲止水中有 有鳶飛魚躍氣象하나니 是有道的心體니라.(전22)

움직임을 좋아하는 이는 구름 속의 번개나 바람 앞의 등불같고, 고요함을 즐기는 이는 식은 재나 마른 나무 같다. 모름지기 멈춘 구름 속에 솔개가 날고 잔잔한 물 위에 고기가 뛰는 기상이 있어야 바야흐로 도를 깨치는 마음을 지니라.

중용(中庸) 의미

천지[만물]은 타고난 본성에 따르고 있다는 뜻 깊은 글귀다.

(中庸,12章,03 詩云 鳶飛戾天 魚躍于淵 言其上下察也)

퇴계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솔개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못에서 뛰노니 이는 우주의 이치가 잘 발현된 상태’라며 연비어약의 뜻을 빌려 만물이 우주의 이치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

심은 전정우 선생, 온고재 이우재 선생 본래의 뜻은 우주의 이치에 순응하고 따른다는 의미이지만 솔개가 힘 차게 날고, 물고기가 뛰는 모습에서 기상과 도약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

트렌드 코리아 2013
김난도, 이준영, 전미영 외 | 미래의창 | 2012

2013년 뱀의 해 소비트렌드 키워드, '코브라 트위스트'(CORBRA TWIST)'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코브라 트위스트(CORBRA TWIST)'는 2013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소비 동향에 이르는 다방면의 10대 트렌드 키워드를 2013년 흑사띠에 맞춰 각 키워드 첫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용어로 간략하게 소개된 그 내용만으로 다가올 2013년 전반적인 동향을 알 수 있다. 또한 2012년 10대 트렌드 키워드였던 '드래곤 볼'에 대해서도 회고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셀리 케이건 | 엘도라도 | 2012

종교적 믿음과 심리 현상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논리와 이성의 측면에서 죽음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고찰한 책이다. '죽음 이후의 삶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 책은 죽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삶이 끝난 후에도 삶은 계속되는지 풀릴 듯 풀리지 않는 과제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낸다. 삶의 가치와 죽음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와 소설 등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죽음'을 다루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삶'을 이야기하며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면 가치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가장 낮은데서 피는 꽃
이지성, 김중원 | 문학동네 | 2012

<리딩으로 리드하라>의 저자 이지성과 <전략기획자로 승부하라>의 저자 김중원이 세계 3대 빈민 도시인 필리핀 톤도에서 발견한 완벽한 교육법에 대해 이야기 하는 책이다.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교사들이 배움의 기회에서 차별을 두지 않고, 우등생이 아닌 인간을 만들며, 동반성장 학습을 교육 철학으로 삼고 있는 톤도 교육센터의 특별한 교육철학을 들여다본다. 입시위주의 교육에 매달려 있는 한국과는 다르게 아이가 자신의 삶을 가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톤도의 교육법을 통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의 답을 얻을 수 있다.

천년의 밥상
오한샘, 최유진 | MID | 2012

우리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인이 지녀야 할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자 EBS에서 기획한 우리역사 알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책은 정작 한국인이 몰랐던 우리 음식에 얽힌 이야기로 한국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조선의 22대 왕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 때 특별히 지시한 음식, 고구려 우 황후가 남편이 죽자 시동생 연우와 재혼하여 황후의 자리를 지켜낼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음식, 조선 16대 왕 인조가 피난길에 먹었던 음식 등 오천년 한국사를 요리한 30가지 음식 이야기다.

주제별 추천도서			
서 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지식의 역사	찰스 밴 도렌	갈라파고스	인류의 진보를 가능케 한 전 세계 모든 지식을 정리 및 소개
죽음이란 무엇인가	셀리 케이건	엘도라도	종교적 믿음, 심리현상을 배제한 죽음과 삶에 대한 논리적 고찰
그래도 사랑하라	전대식	공감	김수환 추기경의 가르침의 정수를 일상사건과 함께 구성
트렌드 코리아 2013	김난도 외	미래의창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13년 전망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	스티브 존스	한국경제신문사	700년 역사 속에서 탁월한 아이디어를 탄생시키는 7가지 패턴 분석
사이언스이즈컬처	노엄 촘스키 외	동아시아	세계적 석학 44인이 펼치는 인문학과 과학에 관한 지적인 수다
뮤지컬 블라 블라 블라	박돈규	숲	유명 뮤지컬 20편에 대한 소개와 감상
(할아버지가 꼭 보여주고 싶은) 태양명화 101	김필규	마로니에북스	세계적인 걸작 101편을 손자 손녀에게 읽어주듯이 친절하게 소개
가장 낮은 데서 피는 꽃	이지성, 김중원	문학동네	쓰레기마을 톤도에서 발견한 희망의 교육
여울물 소리	황석영	자음과모음	19세 이야기꾼에 대해 집필한 자전적 작품
화창	김영송	세계사	'풍자와 반성의 시대'를 남는 김영송 시인의 시집
천년의 밥상	오한샘, 최유진	MID	먹을거리 속에 살아 숨 쉬는 우리 역사 소개

Incheon Life Story



인기 좀 끌던 그때
45년 전 서울 사는 동창들을 작약도로 초대했었습니다. 당시 휴대용 전축에서 나오는 음악소리에 맞춰 춤을 추며 인기 좀 끌었답니다.
임세자_연수구 연수1동



그때 그 시절을 그리며
남편과 달동네박물관에 갔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모습 그대로더군요. 대가족이 살기에 불편했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그 시절이 그림습니다.
유미자_연수구 동춘동



경인아라뱃길에서 찰칵~
가족과 함께 경인아라뱃길에 놀러갔었어요. 기분이 좋아 멋지게 브이~를 그리며 찰칵 사진을 찍어보았어요.
김은수_부평구 산곡3동



짜장면 배달왔습니다!
도도 도둑이야~ 아, 저 짜장면 배달왔는데요. 얼마 전 가족과 치이냐타운에 방문했다가 짜장면박물관에서 한 컷 남겼습니다.
김진익_계양구 효성1동



아름다운 인천의 섬
덕적도 자갈마당 해변가 사진입니다. 인천에 멋진 섬이 많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해요.
김은하_옹진군 영흥면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인천 풍경에 대한 단상, 인천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원고지 1매 분량)을 보내 주세요.

※ 채택된 분께는 재래시장상품권(2매, 장원은 4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 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합니다.

보내실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문의 : 440-8305



그 곳에 서면 인천의 실루엣이 아름답다

글, 그림, 사진 차지원 일러스트레이터

월미산은 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은 ‘꼬마산’이다. 작고 낮지만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한줄기 굵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품 너른 산이다. 조선시대 때 해안 방어의 요충지였으며 유사 시 임금이 안전하게 강화도로 몸을 피하는 통로로서 월미행궁이 설치된 곳이었다. 개항 후에는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열강들의 함선이 자주 출몰했던 현상이기도 했다. 6·25 전쟁 때는 인천상륙작전의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월미산의 원래 모습은 포격과 함께 사라지는 등 거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장소다.

이후 반세기 동안 이 땅은 군 주둔지로서 일반인들의 발길이 통제되었던 ‘금단(禁斷)의 땅’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월미산을 걷는 것은 쓰러린 시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역사산책’이다. 이제 월미산에서 제 2의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된다. 이름하여 인천방랑(?)작전. 떠돌이 방랑 고양이 도도(都島)의 인천탐방이 월미산에서부터 시작된다. 도도의 눈으로 보는 인천은 어떤 모습일까?

전망 좋다. 멀리 팔각대,
장봉도, 등경도가 짝짝
안쪽에 보이는 구나
월미전망대는 빼гляд다.
바다 보면 인천 앞바다를 뿜는
파티들이 된다.

고양이를 부탁해

천방지축 고양이 ‘도도(都島)’가 인천을 스케치하며 기행합니다. 도도는 도시 ‘都’자와 섬 ‘島’자를 의미합니다. 인천은 마치 고양이 같은 도시입니다. 사람에게는 잘 길들여지지 않지만 장소에 대한 애착이 강한 속성을 가졌습니다. 도도가 인천의 곳곳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고양이 도도를 잘 부탁합니다. 아옹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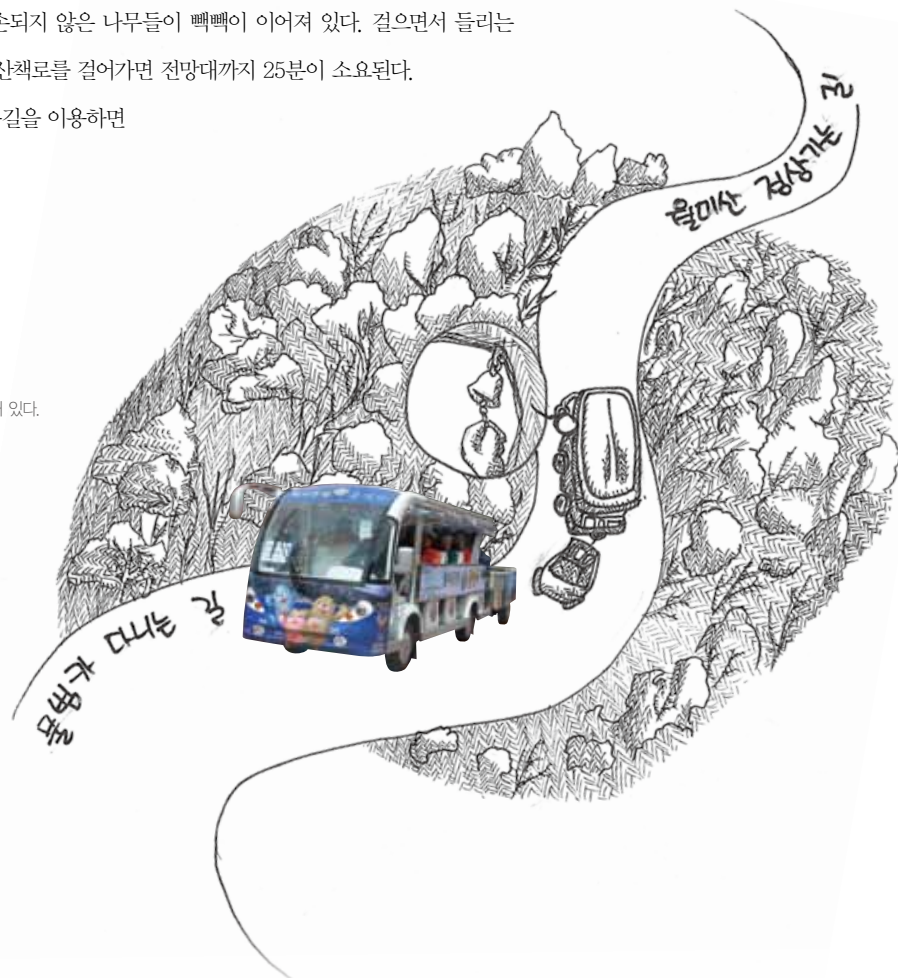


월미공원에는 구간별로 아름다운 길들이 있다.
달빛누리길(공원정문-안내소-월미삼거리),
월미둘레길(만남의광장~야생화단지~돈대삼거리~만남의 광장4거리),
산마루길(돈대삼거리~월미정상광장)
월미노을길(문화의 거리입구~목책계단~돈대삼거리),
숲열림길(전통정원~목책계단~둘레길) 그리고
숲오름길(둘레길~목책계단~월미정상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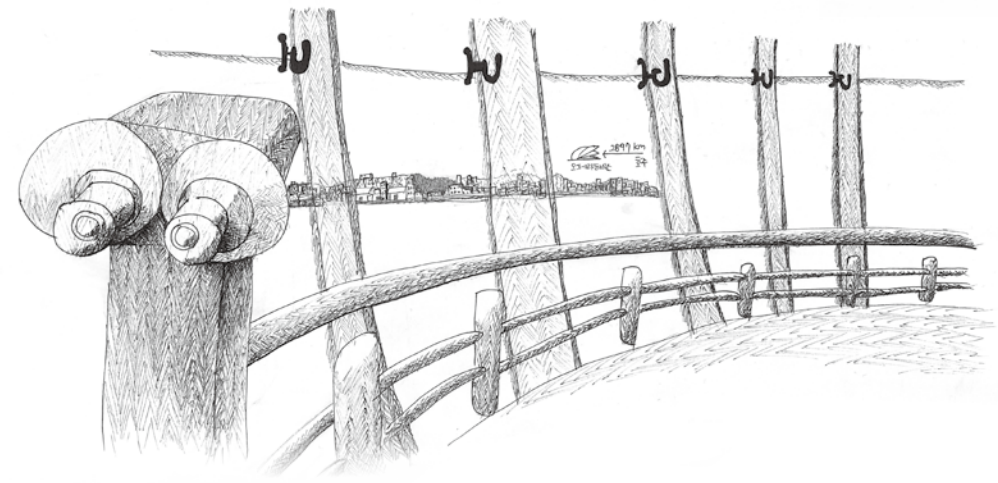
월미산을 오르는 방법은 두 가지. 물범카를 타고 가는 것과 길게 이어진 산책로를 따라 걷는 것이다. 물범카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마스코트인 백령도 물범을 모델로 했다. 편하게 물범카를 타고 15분이면 전망대까지 충분하다. 공원안내소에서 정상 광장까지 1.3km의 거리를 지나는데 어른은 1천원, 어린이와 청소년은 500원이다. 산책로는 지난 50여 년간 일반인의 출입 차단으로 훼손되지 않은 나무들이 뽕뽕이 이어져 있다. 걸으면서 들리는 새소리가 여느 클래식 못지않게 심신을 안정시켜준다. 산책로를 걸어가면 전망대까지 25분이 소요된다. 정상 광장까지 가는 빠른 길도 있다. 숲열림길과 숲오름길을 이용하면 전통공원에서 10분이면 ‘축지법’으로 도달한다.

월미산은 숲이 공원의 절반을 차지한다. 260여 종에 이르는 식물과 각종 동물이 살 정도로 자연이 온전히 보전돼 있다. 개쑥부쟁이, 구름버섯, 곤줄박이 등 희귀동식물과 인사를 나누고 폭신한 흙의 감촉을 느끼며 숲길을 걸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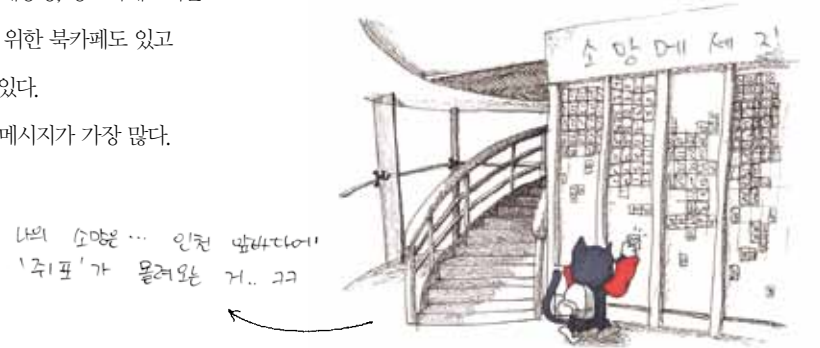
일제는 1922년 아예 육지와 월미도를 잇는 독길을 만들고 월미도를 국내 최대의 바다 유원지로 만들었다. 봄에는 벚꽃놀이, 여름에는 해수욕, 그리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건강욕을 즐길 수 있었다. 그 무렵 조선팔도 백성들의 소박한 꿈은 단 하루라도 월미도에 가 호사를 누리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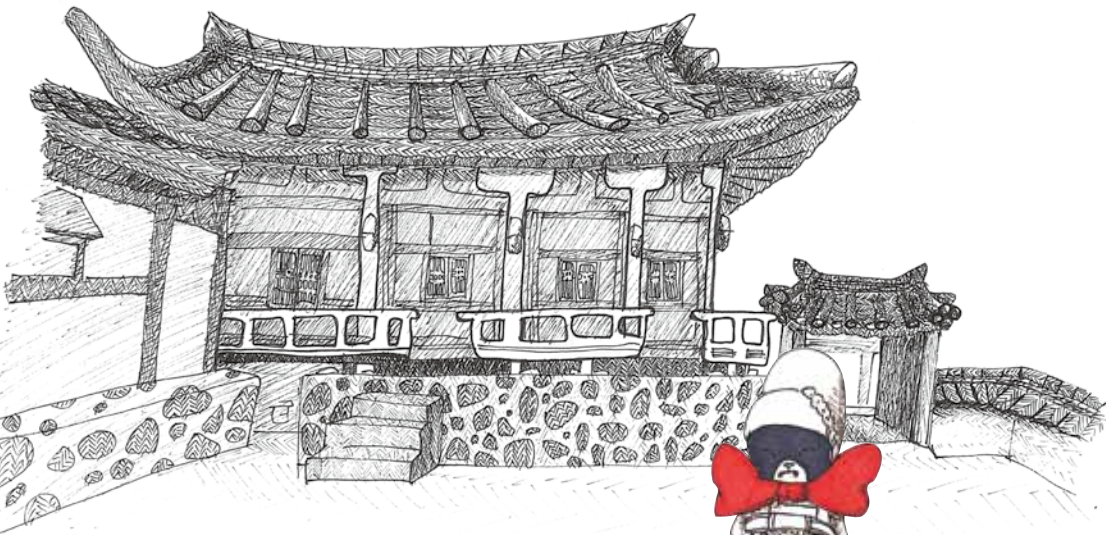


사방이 유리벽으로 만들어진 월미전망대는 아이스크림 혹은 핫볼처럼 생겼다. 인천을 제대로 조망할 수 있는 명소 중의 명소다. 야간에는 ‘자체발광’으로 멋진 조명을 뽐어댄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4개의 층으로 이뤄진 전망대는 인천대교, 서해바다, 인천국제공항, 송도국제도시를 한눈에 담기에 안성맞춤이다. 휴식과 독서를 위한 북카페도 있고 방문객을 위한 소망메시지 블록이 조성되어 있다. 소망메시지는 역시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메시지가 가장 많다.



와우! 인천이 이런 모습이었다니... 전망대 꼭대기에서 바라 본 발밀의 항구 모습이 재밌다. 커다란 배가 좁은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온다. 갑문이다. 1974년 월미도와 소월미도 사이에 초현대식 갑문을 설치했다. 도크는 주변이 막힌 곳에 배를 놓고서 물을 빼고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갑문 옆 큰배 옆으로 자동차들이 줄지어 있다. 수출되는 차들인데 마치 장난감 차처럼 작게 보인다. 창가에는 각 나라의 이름과 거리가 표시되어 있다. 영국 런던으로 가려면 8천872km, 불가리아 소피아는 8천 229km를 가야한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인천도 이렇게 넓은데 수천km를 어떻게 가야하지? 전망대 꼭대기에서 보는 인천은 엄청 작다. 조그만 송도국제도시, 조그만 청라국제도시, 조그만 영종도... 비행기도 날파리처럼 작다. 전망대를 나와 정상광장에서 왼쪽을 보면 낮은 성곽이 둘러싸여있는 월미돈대가 있다. 여긴 뭐하던 곳이지? 포? 전쟁할 때 쓰는 포다! 6·25전쟁 때 사용한 것인가. 외세를 물리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월미산은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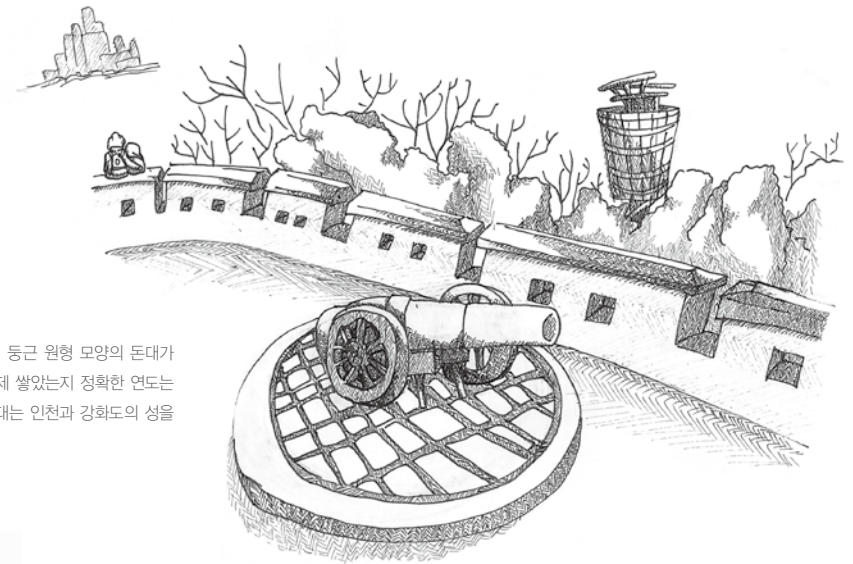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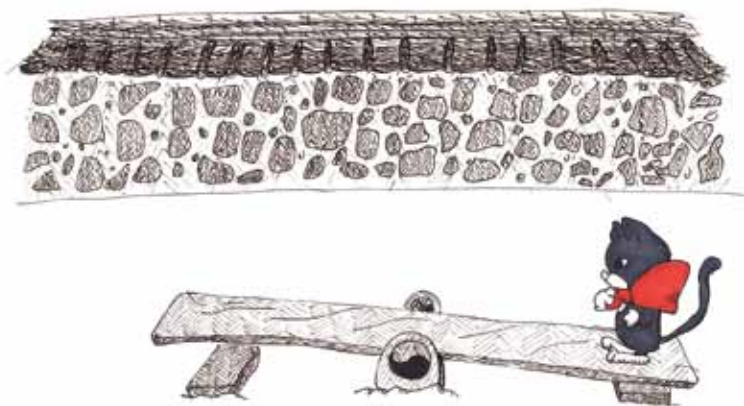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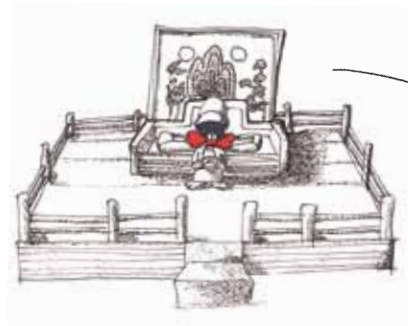
에능! ~ 5도, 많이 된 고양이



다시 산 밑의 한국전통정원으로 들어선다. 연못 애련지를 비롯한 국담원, 부용지 등 궁궐의 정원을 재현한 곳이다. 전통의 미를 감상하다보면 충충걸음이 팔자걸음으로 바뀌면서 몸과 마음이 금세 여유로워진다. 전통정원 가운데를 흐르는 개울을 따라 계속 거닐면 아담한 초가가 나온다. 그 앞에는 손바닥만한 논과 밭이 있어 아이들의 관찰학습장으로 좋다. 시원한 폭포를 뒤로하고 담장을 끼고 안동하회마을에 있는 양진당을 재현한 양반집으로 다가섰다. ‘여봐라~’ 대문을 밀치고 짐짓 허세를 부리며 앞마당으로 들어선다. 그 안에는 전통의상체험, 제기차기와 윷놀이, 널뛰기 등의 전통놀이가 가능하다. 널뛰기는 혼자 못하는 데... 다음엔 꼭 옆 동네 예쁜 아옹이랑 와야지.



옛 지도 ‘영종지도’를 보면 월미도 남서쪽 약 4부 능선에 둥근 원형 모양의 돈대가 있었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길 없다. 월미 돈대를 언제 쌓았는지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다. 외세의 접근이 활발하던 조선 후기, 월미 돈대는 인천과 강화도의 성을 지키는 군사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근데 거리를 조아린 사대씨 신하들은 거렁
세생전 한바리 보이지 않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전시해 놓은 월미문화관, 전시뿐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도 있어 전통문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전통생활문화전시실은 선조들의 탄생부터 제례까지의 생활양식을 전시해 두었다. 전통혼례체험이 가능하다. 궁궐문화전시관은 왕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향오문을 거쳐 들어가면 왕이 일하던 공간과 개인적인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왕의 옷 곤룡포를 입고 왕좌에 앉아 일일 군주가 되어 무게를 잡아본다. 옛 궁중음악도 들을 수 있고 왕이 먹던 수라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도록 전시해 두었다. 왕의 일상과 선조들의 전통문화까지 살아있는 역사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다.





글. 강옥엽 시 역사자료관 전문위원

인천 역사의 이력서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 누구나 각자의 이름으로 된 나름의 이런 저런 삶의 궤적을 갖고 있다. 혹자는 그것을 경험이라 하고, 혹자는 스펙이라는 그럴싸한 표현으로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통상 이력(履歷)이라 말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공간도 '인천광역시'라는 이름과 함께 다양한 역사의 이력서가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인천의 이름은 비류의 미추홀(彌鄒忽)로부터 출발하여 매소홀(買召忽), 소성현(邵城縣), 경원군(慶源郡), 그리고 조선 태종 13년(1413) 10월 15일에 이르러 인천군으로 불려졌다. 따라서 웬만한 '인천인'이라면 비류의 미추홀로부터 2000년,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올해가 B.C.18년으로부터 기산하여 2030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인천' 이름의 탄생으로 보면 600년이 되는 시점이 2013년이라는 사실도 인천 지역사회에는 널리 이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이름의 변화처럼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 술한 역경을 극복하고 오늘날 인천광역시로, 또 대한민국의 제3의 도시로 자리한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280만 인구를 품고 있는 10개의 군구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군구에도 그 지명에 따른 나름의 역사가 깃들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 군구의 지명이 오랜 역사적 연원을 가졌음에도 지금은 '인천광역시'라는 범주 속에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인천광역시라는 행정단위에 의해 인위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지역이 '인천'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한, 그 범주 안에 생활하는 우리 인천인들은 2000년이 넘는 역사와 지명 탄생 600년이라는 역사성과 공간적 공통점을 정신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근래 인천지역사회의 화두는 단연 GCF 사무국 송도 유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여러 제반사항 준비 문제다. 명실상부하게 국제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인천으로서는 세계 각국에서 오는 방문객들에게 적어도 인천이 어떤 도시인지? 그리고 '인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아울러 인천 정체성 찾기의 원천적 자료는 결국 인천의 역사와 문화의 이력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 정명(定名) 600년'으로 상징되는 이러한 인천의 역사적 이력을 기억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에서는 2013년을 기해 『인천광역시사』 편찬을 비롯하여, 사업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학술대회, 사진전시회, 합창제, 인천역사퀴즈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인천은 2013년 전국체전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의 과제를 안고 있다. 행사를 치뤄야 할 입장에서는 경기장 시설을 마련해야하는 재정적 여건에서부터 인천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인상적인 개폐화식도 기획해야 하는 등 여러 부차적인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물론, 그동안 모두 4차례의 전국체전을 개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겠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인천인들이 정신적으로 결집해야 한다는 점이다.

2013년, 우리 '인천'이라는 이름이 탄생한지 600년, 술한 역사적 질곡을 헤치고 오늘날의 인천광역시로, 대한민국의 제3의 도시로 자리한 인천, '정명600년'의 역사적 의미가 우리 인천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괴물로 커주렴”

‘창영 창영 창영 창창하다 우리학교’

교가 가사처럼 창영초등학교가 ‘창창한’ 야구 선수를 배출했다.

메이저리거가 된 류현진은 창영초 3학년 때 야구공을 손에 쥐었다.

동산중·고를 거쳐 2006년 프로 무대에 데뷔했고 단번에 ‘괴물’로 변했다.

이제 창영초는 그렇게 창창하지 못하다.

한해 입학생이 40명 정도다. 그중 절반은 여학생이다.

아이들이 없어 야구단 운영도 힘들다.

원도심에 사람이 들끓어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괴물’이 나타날 수 있다.

글·사진 유동현_본지편집장